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자크엘뤼

자크엘뤼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머리말	3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아나키즘	9
제 2 장 아나키즘의 근거로서의 성서	30
부록	56
결론	68

을가질필요도없다. 우리는같은적, 같은위험이있으며그것은사실아무것도아니다! 우리를갈라놓는모든것은한편으로는하느님과예수그리스도를믿는신앙및그결과들이며, 또한편으로우리의차이는이미강조한것과같이“인간본성”에대한평가다. 우리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인식을분명히밝혀야한다. 나는이작은에세이에서다른것은다루려하지않았다.

교단으로서의로마가톨릭은대문자 Catholic, 보편적이라는뜻혹은보편교회를뜻하는가톨릭은소문자 catholic 을학술적으로구분하여사용한다.-편집자주

머리말

여기놓인질문은적잖이어려운것으로두가지측면에서오래전부터존재해왔던주제에관한것이다. 원래아나키스트들이란모든종류의종교(당연히이범주에는그리스도교도포함된다)에대해적대적인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무질서의원천이자기존의권위를부정하는아나키스트들을혐오하는것은당연하다. 내가문제삼고자하는것은바로이단순하지만논의조차되지않았던주제이다. 1968년혁명에서학생들이몰었던것과같이아마도“내가어떤관점에서말하는지”설명할필요가있을것같다! 나는그리스도인이지만태어나면서부터가족에게로부터신앙을물려받은그리스도인이아니라회심에의해그리스도인이된사람이다. 나는젊은시절파시스트운동을혐오했다. 1934년 2월 10일, 나는불십자단 les Croix de Feu¹에반대하는시위를하기도했다. 당시지식적인면에서나는마르크스(Karl Marx)에게강한영향을받았고, 이영향은그의책들에서뿐만아니라내사적이고또가족적인 — 내아버지가 1929년의경제위기때로실업자가되어 1930년에도줄곧실업자신세였던것을나는기억한다! — 그리고개인적인상황들에서비롯한것이였다. 학생으로서나는경찰과맞서는투쟁에참여했고(예를들어제즈 Jèze 파업²) 점차‘자본주의체제’보다도국가를더혐오하게되였다. “모든냉혈한괴물들보다더냉혈한것이국가”라고정의한니체의말은나에게사상의원천이되였다. 또한, 나는마르크스의분석들을추종하기는했지만(그리고국가가사라진다음세상에도래할사회에대한그의예측을따르기는했지만!) 나와공산주의자들의관계는몹시나빳다. (그들이보기에모스크바의지령을전혀존중하지않았던나는프티부르주아였다. 그들은마르크스의사상에대해서는사실상아는것이없었다. 그들이읽은것이라고는『공산당선언 le Manifeste de 48』이전부였다!) ‘모스크바공판’때나는그들과완전히결별했다. 트로츠키에게경도되어서가아니라 [크론슈타트 Cronstadt 의수병들³과마흐노(Makhno) 자유지구⁴는내가보기에진정혁명적이었으나안타깝게도짓밟혔다.] 레닌의위대한동지들이그들의고발처럼반역자혹은반혁명분자등이라고는믿을수없었기때문이다. 그들을향한단죄는냉혈 괴물보다도더냉혈한선언으로느껴졌다. 또, 나는프롤레타리아계급의독재가프롤레타리아계급을대상으로한독재로변질되는것을어렵지않게깨달을수있었으며 — 눈을뜨고자마음먹은사람이었다면누구나 1935~1936년에 20년뒤가어떻게될것인지예측할수있었으리라그나는단언할수있다 — 더구나국제주의와평화주의같은기본적인원칙들중단한줄조차도남아있지않음을깨달았다. 내생각에그것은반국가주의가되어야했다.

한편, 마르크스를 향한 나의 경외는 다음과 같은 사실때문에 식어버렸다. 즉, 나는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는 동시에 덜 인상적이었으나 매우 좋아했던 프루동(Proudhon)의 글들을 읽었는데, 마르크스와 프루동의 논쟁에서 프루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태도에 화가 났다. 결국 나에게 공산주의자들을 아주 싫어하게 만든 것은 스페인 내전기 간중공산주의자들의 태도 및 공산주의자들이 지행한 바르셀로나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었다. 여러 동기 — 당시 스페인의 아나키스트들과 가졌던 접촉을 포함해서 — 가 나를 아나키스트들과 가까워지게 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장애물이 나의 평생 동안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나는 아나키즘에 아주 근접한 운동에 매혹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제 아나키즘 학생 운동’이었다. 나는 기드보르(Guy Debord)와 친분을 가졌고 한 번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내가 당신의 운동에 참여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동지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편으로 이 두 사상을 ‘화해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해는 가능한 것으로 1900년 이래 ‘사회적 그리스도교’ 운동이 존재해왔으며 1940년까지 성서의 윤리적 가르침과 온건한 사회주의(S.F.I.O.의 A. Philip)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론 그 이상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고, 그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부조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나는 이들에 대해 영적이고 지식적인 탐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신분열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서의 메시지(예수의 “듣기 좋은” 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메시지를!)를 진지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국가에 복종하는 것의 부당함을 알게 되었고 성서를 통해서 아나키즘의 사상을 안내받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견해로, 나는 내 사상을 형성해 온 카를 바르트(Karl Barth)의(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항상 옹호하는) 입장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나는 그 같은 의미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들이 특히 미국에서 생겨나는 신기한 사조가 발흥하는 것을 본 바가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기원을 가진 아나키즘 사상가 북친(Murray Bookchin), 특히 1987년 『그리스도교와 아나키즘 Christianity and Anarchism』을 쓴 베르나드 엘러(Vernard Eller)가 그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음에 언급하는 사람은 아나키즘의 선조라 할 만 한데, 진정으로 아나키스트는 아니었지만, 예수에 대해 놀라운 책을 쓴 바르뷔스(H. Barbusee)⁷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아나키스트였던 예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또한 나는 아나키즘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심오한 사회주의의 형태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나는 내가 최근 서있는 이 사상의 자리에도 달했다. 단 한번의 각성이나 깨달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혼자.

그러나 또 다른 전선, 즉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세상과의 전선에서 그것은 그들을 받쳐 줄 난간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우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결국 제 3 공화국의 공화주의 우파가 그나마 가치 있는 우파이지 않았을까.⁶⁷ 그것은 더는 우리의 일은 아니다. 우파는 필연적으로 초자본주의의 비대한 승리로 귀결되거나 파시즘의 나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⁶⁸ 다른 우파는 없다. 각설하고, 마르크시즘과 20세기 그것의 분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모스크바 정부,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바르셀로나의 끔찍한 대학살 그리고 독소獨蘇 조약, 1940년의 수령주의에 대한 공산당의 용의 주도함, 그리고 1944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들이 이후 그리스도인이 스탈린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그럼에도 우리의 용감한 목사들이 스탈린식 공산주의의 미학을 발견하고자 했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 아나키즘은 더욱 분명해 보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아마 그러한 배움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그리스도교 사상에 미친 아나키즘의 세 번째 영향이다. 우리는 국가의 지배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시대의 비극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민족국가”를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하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민족국가가 결국 마르크스주의자 혁명들보다 더 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르크스주의자 혁명들은 민족국가의 구조와 국가의 방향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끔찍하게도 마흐노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는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배권이라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졌다는 면에서 유사한 것이다. 이는 “유럽의 건설”을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가들이 그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는 데 하나의 유럽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국가적 민족주의는 세상을 물들여 버렸으며, 예를 들어 모든 아프리카 민중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지배했던 국가 형태를 고스란히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이것이 아나키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몹시도 중요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도입부에서 아나키스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아나키즘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선언할 의도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의 혼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렴 이론”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공통되고 명백한 일반적인 방향성이 거기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동할 필요도 없고 환상

이기사가아나키스트들에의해출판된다면그것은아마그들의영혼이“모든사람에게열려있다”고하는가톨릭본래의의미에서의가톨릭신앙인들보다더열려있다는뜻일것이다.

결론

글을끝마치면서나는약간의염려가생기는데, 그것은아나키스트독자가성서본문에대한이러한분석을읽으면서인내심이필요했을것이기때문에, 혹시나지겨웠거나귀찮지않았는지, 정말그에게도움이되었는지, 그리고하느님의말씀을 담은책인성서를그저다른책들과비슷한것으로생각할수있지않을까하는기우때문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주제는나의과제에포함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고그리스도교의모든사상을다루려면이주제를다루지않을수없었다. 이것은아나키스트들에게도그리스도인들에게도반드시필요한것이다!

그리고지금….

한책의결론은어떻게내려야하는것일까? 이글은그리스도인들에게경각심을심어주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인듯싶다. (그리고그리스도인으로서나는그리스도인들을아나키스트그룹에끌어들여야하는것이아니다.) 나에게있어우리가배운것은, 우선그리스도교유심론 Spiritualisme chrétien 을절대적으로거부하여야한다는것, 다시말해서하느님으로달아나거나미래의삶으로달아나는것(나는부활을믿지만, 그것의의미하는바는전혀도피와는관계가없다) 또는이땅의것들을멸시하는신비주의를거부하여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하느님은우리를이땅에내려놓으셨으며, 그것도그냥내려놓은것이아니라우리가거부할수없는어떤사명을지워서그렇게하셨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여적인’그리스도인들에게필요한것은이세상의지배적인이데올로기의함정에빠지지않는것이다! 나는이미교회와왕들아래서는군주주의자가되었으며, 나폴레옹아래에서는제국주의자가, 공화국아래서는공화주의자가되었고지금교회(적어도프로테스탄트교회)는모든사람의사회주의로부터사회주의자가되었다고말하였다. 그리고이는바울로의가르침과마주친다. 이세상의이상을따라가지마십시오. 그러므로아나키즘은그리스도인들의순응주의적인유연성에훌륭한균형추를달아줄수있다.

그러나이주제의핵심으로들어가기전, 명확하게해야할것이있다! 이글의목적은과연무엇이어야하는가? 모든종류의오해를피하기위해서는초안을잘배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나는믿는다! 무엇보다도나는누군가를개종시키려는의도가전혀없음을명확히해둔다! 나는아나키스트들을그리스도교신앙으로‘개종’시키려고하는것이아니다! 이는단순히정직함에서우려나온것이아니라성서에따른태도이다. 지난몇세기동안교회는설교해왔다. “**정죄**를받든지 **회심**을하든지선택하라.” 그리고열정적인사제들과선교사들은온힘을다해선지의신앙을품고“한영혼을구원하기위해” 모든것을걸고노력했다. 그런데내생각에여기오해가하나있는것같다. 물론다음과같은성서구절들이있다. “네가믿으면구원을받으리라.” 하지만, 우리가잇은원리가한가지있다. 성서의그어떤문장도그문장이표현된문맥, 이야기, 전개, 논리로부터분리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사실단도직입적으로말해서성서가하느님께서모든사람에게허락하신보편적구원을말하고있다고나는생각한다. 그런데도회심과신앙이라니? 그것은전혀다른문제다! 그것의의미하는바는(관습에도불구하고!) 구원이아니라책임이다. 다시말해, 회심으로부터어떤삶의방식에연루되거나다른한편으로하느님께서요구하는어떤섬김에연루되는것이다. 그렇게그리스도교신앙에참여한다는것은다른사람에대한하나의특권이전혀아니며추가되는책임, 새로운책무이다. 그러므로개종주의에따른행동들을경계해야한다.

그와반대로그리스도인들이아나키스트가 **되어야**한다고말할필요역시없다! 나는그리스도인들이‘정치적’선택의상황에놓인다면, 다시말해정치적인목소리에참여해야한다면우선으로아나키즘을피하지않기를권하는데, 이는그확신이성서적사고에매우가깝다고여기기때문이다. 물론세속적이고뿌리깊은편견이제거되지않는한몇년안에내말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질것같지는않다. 한편, 나는그리스도인들이이러한사상적인견해를하나의‘의무’로받아들일필요는없다고말하고싶다. 왜냐하면, (이역시수세기동안반대로이해되어왔다) 그리스도교신앙은의무나규제의세계로사람을들어가게하는것이아니라반대로자유로운삶으로인도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단지내말이아니라사도바울로가(고린토에보낸편지들을비롯해여러편지들에서⁸⁾) 끊임없이언급한것이다. 결국, 세번째로언급하지만나는어떻게해서든내삶에서이두가지사상및행동그리고두가지태도를일치시키려고하는것이아니다. 그리스도교가사회에서더는지배적인위치에있게되지않은이래로그것은그리스도교인들에게있어난천한점은굳이포기해가면서그러한이데올로기를그리스도교에연결하려는하나의편협증적인노력이다. 그렇게 1945 년이후많은그리스도인이소탈린식공산주의로돌아서고있었을때, 그들은거추장스러운개념들그러니까하느님의주권이라든가예수그리스도의구원같은것들이아닌, 가난한자들, 사회정의그리고사회를변화시키려는노

력에 관련된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을 두려고 했다. 1970 년대에는 소위 해방 신학이라는 경향마저 출현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극단적으로는 (남아메리카의) 혁명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었다. “(그가 누구든)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들은 2 천 년 전의 그 사건⁹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00 년 무렵에 개신교 합리주의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전제는 단순했다. 과학은 공이성이며 공진리이고 이성이다 스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성서와 복음은 지켜야 하지만, 예컨대 하느님이 사람으로 성육신(成肉身)하실 가능성 그리고 기적들, 부활 등 과학과 이성에 반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분을 버림으로써 (합리주의와) 일치치를 이루려는 그 같은 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향의 수혜자가 된 것은 이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힘을 다해 각종 세미나 (나역시 참석한 바 있는) 를 통해 무슬림들과 교류하려 할 때 그들은 둘 사이의 다음과 같은 유사점들을 힘주어 강조할 것이다. 한 분 하느님 (단일 신론의 종교¹⁰라는 점), 경전을 가진 종교¹¹ 등, 같은 주요한 쟁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라 불릴 수 있는지의 문이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아나키즘과 성서적 신앙 사이의 어떤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진정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로부터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그 관점을 고수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만일 정직해지고 싶다면 자신을 스스로 감추거나 숨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버리지 말고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야 한다. 이 글은 아나키스트가 보기에는 당황스럽거나 우스워보이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나에게서는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쓴 바에 따른 오해를 지워버린다면 잘못된 그리스도교로 다시 돌아온다. 사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교적 경향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서 메시지와는 공통점이 없는, 히브리 성서에 관련된,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한 종류의 “문집”, 즉 복음서들 및 서간들이 존재한다. 모든 교회들은 세심하게 그리고 자주 국가 권력들을 존중하고 지탱해왔으며, 순응주의를 커다란 미덕으로 여겨왔고, (하느님의 뜻에는 주인과 종이 있고 사회경제적 성공은 하느님의 축복의 외적인 표징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의 불의들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허용해왔으며, 또한 (진정 복음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원한다면 사실상 그리스도교 ‘윤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윤리로 변형시켜왔다. 인간을 완전한 생명으로 간주하거나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윤리의 잣대로 잘못들을 심판하기가 사실상 더 쉬운 법이다. 결국, 모든 교회들은 지식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정신과는 상반된 ‘성직’을 구축해온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성직구 성원들을 ‘성직자’라고 불렀을 때 사목은 봉사였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뜻이

란 자델 바스토는 CRS 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나치친위대 (SS) 같은 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훈련에 의해 상부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책임을 저버린 것이었다. 그와 반대로 예수는 인간성을 재발견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그의 적들을 다룬다. 란 자델 바스토는 선언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 현자는 우리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와 반대로 예수는 그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지 그리고 어디에 힘을 사용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여야 하는지 말했던 것이다.

알바로 울쿠에 소쿠에 (Alvaro Ulcué Chocué) 그리고 예수

오늘날 나는 가톨릭 catholic 정신⁶⁶ — 다시 말해 보편적이고 각각의 인간에게서 확인되는 한 형제로서의 정신 — 에 고무된 어떤 대중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나자렛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확인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가 서로 사랑함으로 항상 지배자들에게 맞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으며, 모든 위계 질서 및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모든 권력을 파괴하고자 했다고 믿는다.

여기 1985 년 3 월에 출간된 책 한 권이 있다. “알바로 울쿠에 소쿠에, 콜롬비아의 유일한 인디오 사제였던 그는 1984 년 11 월 말 살당했고, 1982 년에는 이미 그의 누이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죽기 전, 그는 제도에 의한 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구경꾼들이며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급진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985 년 11 월의 『그리스도적 증언 Témoignage chrétien』을 보라.)

보젤 Bozel 과 플라네 Planay 교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임 사제와 함께 현세 상황을 분석하고 서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였다.

우리는 이 폭력이 은행, 군대 그리고 경찰에 의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자울을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는 행위가 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고발하기에 이른다. 사람을 기아로 몰아 죽이는 이 살인자들의 암살에 대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군사 예산, 무기의 제조와 판매를 고발한다.

우리는 또한 특히 가난한 사람들 및 야당 정치인들이 겪는 경찰 폭력, 즉 투옥과 고문 등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주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 국가로부터 이러한 폭력에 대한 거절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한다.

대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들의 행동을 되새긴다면 그리스도인들 및 아나키스트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없다면어찌하여나를때리느냐?”그분은사람들이그에게겪게할죽음을두려워하지않으셨다.

예수는또말한다. “누가오른뺨을치거든왼뺨마저돌려대고또재판에걸어속옷을가지려고하거든겉옷까지도내주어라. 누가억지로오리를가자고하거든십리를같이가주어라.”그가원한것은억압받는사람들이주인없이살아갈수없을것같은두려움에서벗어나는것이였다. 예수께서그렇게한것처럼억압받는사람들도그렇게자기주인들을위선자요독사의자식들(도마뱀들)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그들의주인들은더는지배자의영애사로잡힌채로남아있지못할것이다.(『마태오의복음서』 23 장을보라) 지배자는그가지배하는동안항상우쭐대겠지만우리는그의천박함을무시하도록하자. 아무도무시당하면서는살아갈수없기에그는자신의우쭐땀을그만두지않을수없을것이다.

 간디 (Gandhi), 란자델바스토 (Lanza del Vasto)⁶³, 레흐바웬사 (Lech Walesa)⁶⁴ 그리고예수

간디를예수와같은방식의비폭력주의자로보는것은허튼소리다. 간디가비폭력에헌신했다면그것은국가인도의지배권을얻기위해서였다. 그는더강한권력인“영국권력”에대항하여비폭력을사용했지만, 더약한권력에대항해서는전쟁무기를사용했던것이다. 인도의지도자들즉자신의제자들과함께그는그를암살하려던인도인들에대해경찰력을동원했다.

어떤크리스마스에는시크교도를향해전쟁을선포했는데이는그들이편자브지방에서독립을선언했기때문이었다. 모든지도자가그러했듯그역시폭력을사용했지만, 그폭력은그의아름다운사상들에덮여버렸다.

마찬가지로예수의비폭력은란자델바스토그리고오늘날의레흐바웬사와는크게다르다. 그들은폭력을두려워하며폭력의세상에서떨어져있다. 그들은권력의폭력을드러내놓고폭로하는식으로지배권력에도전하는것을거절한다.

1976 년우리는말빌 Malville 시내를뚫고들어갔지만란자델바스토는CRS⁶⁵가우리를폭력진압할것을두려워하였다. 이현자는우리에게온순하게굽히라고요구하였다. CRS 의폭력에대한두려움때문에그는우리에게권력및핵의폭력을받아들이라고한것이였다.

우리는레흐바웬사가폴란드에서이끈놀라운‘연대’운동을높이평가할수있다. 불행하게도오늘날그는이러한자유의도약을멈추어버린다. 왜냐하면권력은피를흘리는폭력을행사하겠다고위협하며그는몇몇선언들을포기하라고명령하기때문이다. 그렇게국가의일상적인폭력은계속된다.

그와는반대로, 예수는투쟁에의해반드시얻어지는평화, 그리고권위에대한도발을추구한다. 억압받는사람들의편에선다면자동으로폭력이일어난다는것을그는알고있다; 그가물려서지않는것은아버지와관계속에서그에게선택이있음을알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그는삶을선택하지않을수있다. “제목숨을살리려고하는사람은잃을것이다.”(『마태오의복음서』 16 장을보라)

었다.) 그렇게지난이천년간쌓여온잘못된전통들에서비롯된잘못들은제거되어야한다.¹² (여기서나는로마가톨릭을고발하는프로테스탄트의관점에서말하는것이아니다. 우리는모두같은오류, 같은잘못을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시도를하는사람이내가처음은아니며몇가지를그저재발견하는것일뿐임을말하고싶다.

다시말해나는“태초부터감춰져온어떤것들”의베일을벗기는시도를하는것이다! 여기에서의내입장이그리스도교내부의어떤새로운사조가아니라는말이다. 나는무엇보다그리스도교와아나키즘이만나는성서적‘원리’들을, 그다음에는처음 3 세기간그리스도인들의태도에대해다룰것이지만, 내가다루려고하는것이 1,700 년간의어둠을뚫고갑작스럽게일어난어떤사조에대한것은아니다. 그리스도교‘아나키즘’은항상존재해왔다! 지식적이거나신비에관계된것이거나또는사회적인측면에서단순한성서적진리를재발견했던그리스도인들은역사적으로항상있었다. 역사적으로유명한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en) (초창기), 프라돌치노 (Fra Dolcino), 아시시의성프란치스코 (St. François d’Assie), 위클리프 (Wycliff), 루터 (Luther)(영주들의권력을옹호하고농민반란군을무자비하게살해게한두잘못을제외하고!), 라므네 (Lamenais), 존보스트 (John Bost), 푸코의샤를 (Charles de Foucault)...

더자세한연구를위해나는베르나드엘러의책¹³을참조한다. 예를들어그책에서는권력을부정하고소위“탈정치성”이아닌아나키즘을드러내는등진정한세계레 anabaptism 의성격을드러내면서도다음과같은아이러니를지닌다. “‘권위들’은사악한사람을벌주기위한도구로서하느님께서세우신것이다. 그러나선하게행동하고결코더는사악하지않은그리스도인들은 (!) 정치적권위들에순종할필요가없으며사회및권위들바깥에따로자율적인공동체들을조직하여야한다.” 놀랍게도블룸하르트 (Blumhart) 라는비범한사람은 19 세기말엄격하게아나키즘적성격을지닌그리스도교를만들어냈다. 목회자이자신학자였던그는극단적인좌파였지만권력장악에대한논쟁에는전혀개입하지않았다. 그리고한‘극좌파’의회의석상에서그는다음과같이선언했다. “나는여러분앞에한인간으로서선것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만일정치가한인간을그자체로인정할수없다면정치는단죄받아야합니다.”“다음과같은것이진정한아나키즘입니다. 인간그자체가된다는것, 바로그것입니다. 정치가가된다는것이결코아닙니다.”그리고블룸하르트는그정당을떠나야만했다! 그는실존주의의아버지키에르케고르의위를잇는 10 세기중반아나키즘노선의목소리였지만, 어떤권력의유혹에도걸려들지않았던인물이었다. 그는오늘날개인주의자로 폄하되고저평가되어있다. 그가심지어민주주의에기초한중립권력마저도 (!) 씬없이비난했다는것은사실이다. 다음의문장이그것을증명한다. “어떠한, 어떠한잘못, 어떠한범죄도권력에의해저질러진것들처럼하느님앞에서끔찍한것은없습니다. 왜그렇습니까? 그것은‘공적公的’이라고하나비인격적이며한개인에게저질러지는가장심각한

모욕이기때문입니다.”키에르케고르의많은저작에서도아나키즘적성격이발견되지만, 우리가알다시피아나키즘이라는표현은그당시에없었기때문에언급되지않을뿐이다.¹⁴ 결국설득력이있는베르나드엘러의논증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 그에따르면 20 세기가장위대한신학자인카를바르트는사회주의자이기이전에아나키스트였으며, 공산주의에대해호의적이었다가나중에는그입장을철회했다. 이러한단순한공통점들은내연구가그리스도교내부에서단지예외적인어떤것에불과하지않음을말해주는것이다.

그러나거장들, 지식인들, 신학자들외에도대중적인운동들, 집단적운동을촉발시키지는않았지만한때발흥했던민중의또다른성격의신앙들, 정통교회들에서선포된적있던또다른진실들, 그리고복음에서직접적으로찾을수있는근거들역시잊혀서는안된다. 살아있는진정한신앙을유지했던, 한편으로이단으로몰리지않으면서도스캔들을일으키지않고도 (!) 그것을실천했던겸손한중인들이있다. 그러므로내가주장하려는것은어느순간재발견된어떤진리가아니다. 그것은항상있었지만알려지지않은, 이름없는적은수의사람들에의해이어져내려온것이다. (그리고그자취는그럼에도알려졌다.)¹⁵ 하지만그들은항상그리스도교의신성한교권에의해제거되었다. 그리고그들이시작한복음과성서전체에서비롯한새로운운동들이승리를거둘때마다매우빨리변질하여공적권위에대한순응주의로바뀌고는했던것이다. 아시시의성프란치스코이후의작은형제회수사들이그러했고, 루터이후의루터교도들이그러했다. 바깥에서보기에는그런사람들이없는것처럼보이므로일반적으로드러나는것은위대한교회의영광, 주교들의회칙들, 또는개신교권력의정치적입장표명등뿐이다. 나는이런것들을아주구체적으로경험했지만사실상그리스도인이라고할수없었던내장인은내가복음의진정한메시지를설명해드리려고할때마다다음과같이대답하고는했다. “그건자네의말이야. 자네만그런이야기를하네. 내가교회에서들었던어떤말도자네말과는반대던데!” 그런데, 이런말을하는사람이나뿐만은아니다! 신심깊은“은밀한흐름들”은끊임없이존재해왔으며 (그들이신심깊었던만큼세상에드러나지않았을뿐), 그들이야말로성서말씀과일치하는사람들이었다. 기타화려함, 구경거리, 공적인선언들, 교계계급구조 (예수는어떤것도만든적이없는데도!), 제도적권위 (예언자들은어떤종류의제도적권위를만든적이없는데도), 법률체계 (진정한하느님의대표자들은법률같은것에의지한적이없는데도) 등사람들에게드러나는이모든것은교회의사회학적이며제도적인성격일뿐교회는아니다.

그러나외부의사람들에게는이런것이교회이며, 그러므로이교회를비판할때그들은이렇게교회의드러난것들을감히‘비판’하지못하는것이다. 다시말해아나키스트들이이러한종류의그리스도교를거부한것은옳았으며, 키에르케고르같은명백한그리스도인들일수록이러한것들을더격렬하게공격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내가단순히말하고자하는바는다른의미의‘견해’이며, 공적인교회와소위“사회학적그리스도인들”이라고불리는다수의사람들, 다시말해타인들에대한많은권력을가지고자그리스도교의몇몇성격을도용했던 19 세기교회의고

자기의옳음을입증하기위해사상의대가임을자처하는철학자들과신학자들의논쟁은헛되다.

타르수스 Tarse 의바울로는『고린토인들에게보낸편지』 제 3 장에서, 지혜롭다는사람들의논증은“바람과같은뿐이며… 그들은자신의교묘함의덫에걸렸다”고말한다. 예를들어소크라테스같은사람이그가생각하던민주주의를존중하기위해스스로죽음을받아들이게되었으니말이다.

예수의친구였던요한은그의첫번째편지제 4 장에“하느님을본사람은없으나 사랑은하느님에게서왔으며사랑하는사람은하느님으로부터났고하느님을아는것이니우리가서로사랑하자. 사랑하지않는사람은하느님을알지못하니, 하느님은사랑이시다… 누군가하느님을사랑한다하면서도자기의형제를미워하면그는거짓말쟁이다… 누군가세상의부유함을누리면서도그의형제가빈곤에빠진것을보고모른척하면어떻게하느님이그에게거하신다하겠는가”라고함으로써하느님에대하여굳이묘사할필요없이하느님을설명한다.

우리는예수를믿고그를우리의하느님으로확신하며우리가그를하느님이라고부르는것은이사람이하느님이될만한자격 (전능함, 초월성, 영원성등등) 을갖추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영안에서살게끔우리를이끄시고우리에게삶의맛을선사하신, 모든인간에대한그사랑의태도에의해우리는그를하느님이라고부른다.

혁명을위하여? 어떤혁명인가?

나는저항하기위해무기를잡고폭력을불사하는억압받는사람들을정지할수는없으나진정한혁명을일으키는데있어그런방식은불필요하다고생각한다. 물론그억압받는사람들은권력을가진자들의힘으로짓밟힐수도있고권력이전복되면무기에의한권력의맛을볼수도있겠지만결국그들은새로운억압자들이될것이고, 모든것은다시시작해야할것이다.

진정한혁명을위해서는모든폭력의원천 (위계질서및두려움의영) 을사라지게하는정신적힘을발견하여야한다. 지배자들이더는지배력을잃게될것에대한두려움때문에계속지배자로남고자폭력을사용하도록그들을부추긴다. 지배당하는사람들이지배자가돌아오면살아남지못한다고믿는두려움은그들로하여금폭력을정당화하게만든다. 그들은다른사람을지배하는핑계거리를찾는것이며끊임없이반란-진압…의지옥의악순환을만들어내는폭력의대가를치르는것이다.

예수의영은우리에게그두려움과싸우며폭력에맞서라고말한다. 예수는억압받는사람들에게말한다. “누가오른편을때리거든왼편도내어주어라”그렇게함으로써그는억압하는사람들의폭력앞에서그들을두려움으로부터해방한다. 한때그분자신도그렇게왼편뺨을맞고오른편을돌려댔으로써두려움에서벗어나셨고이렇게말씀하셨다. “내가한말에잘못이있다면어디대보아라. 그러나잘못이

끊임없이예언자들은인간에게하느님과연합하여살라고말한다; 그러나권위들이지배하는인간은다른이들과싸우며자신을스스로입증하기를원한다. 예를들어성서사무엘상 8 장은다음과같이말한다. “그러자모든이스라엘장로들이한곳에모여마로사무엘을찾아가건의하였다. … “우리들다스릴왕을세워주소.”… 야훼께서사무엘에게이르셨다. “백성이하는말을그대로들어주어라. 그들은너를배척하는것이아니라나를왕으로모시기싫어서나를배척하는것이다.”… 사무엘은이렇게일러주었다. “왕이너희를어떻게다스릴것인지알려주겠다. 그는너희아들들을데려다가병거대나기마대의일을시키고병거앞에서달리게할것이다. 천인대장이나오십인대장을시키기도하고, 그의발을갈거나추수를하게할것이며보병의무기와기병의장비를만들게도할것이다. 또너희말들을데려다가향료를만들게도하고요리나과자를굽는일도시킬것이다. 너희의밭과포도원과올리브밭에서좋은것을빼앗아자기신하들에게줄것이며, 곡식과포도에서도십분의일세를거두어자기의내시와신하들에게줄것이다. 너희의남종여종을데려다가일을시키고좋은소와나귀를끌어다가부려먹고양떼에서도십분의일세를거두어갈것이며너희들마저종으로삼으리라. 그때에가서야너희는너희들이스스로뽑아세운왕에게돈을돌리고울부짖겠지만, 그날에야훼께서는들은체도하지않으실것이다.”

나는하느님을믿는다, 어째서인가?

나는유일하신하느님을믿으며이하느님은인간예수다. 많은사람이그는죽었다고하지만나는그가살아있다고대답하며거기에는결정적이고거부할수없는근거가있다. 나와함께살아계신예수를믿을때그것의의미는내가살을맛본다는것이며, 내가그의현존을잇는그시간에는나는더는살아있지도마음을가지고있지도않다. 그리고당연히나는삶을선택한다….

그러므로예수는나에게하느님이며내가그와함께살수있는만큼그러하다.

피에르-조제프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의 『빈곤의철학 La Philosophie de la misère』 제 3 장을읽으며나는그를매우잘이해하게된다. 그가바라본대상은오직한분이며지고한존재이자인간의지배자인신이었다. 그러므로그는신을부정할수밖에없었다. 이신은그의삶을방해할수밖에없었기 때문이다. “신이존재한다면그는본질적으로인간의본성에적대적인존재로서다… 신은결국무엇으로나에게나타날것인가? 나는모를수있다면모른채로있으련다… 어느날내가신과화해하게된다면이화해는내가경험하고그안에서내가모든것을얻어더없이없이만큼이나불가능하기에내가죽기까지절대 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철학들및신학들의허됨

결국, 하느님의존재를인정하거나부정하는문제는별의미가없으며, 의미있는것은삶이주는맛과기쁨을누리는것이다.

용주 (후원자) 들처럼 (이위기의시대에교회를점차떠나고있어점점그수가줄어드는자칭그리스도인이라는사람들!) 반反그리스도적인사람들의말과행동들을정당화하지않고서몇몇오해들을건어내고자한다.

제 1 장그리스도인의관점에서본아나키즘

1. 어떤아나키즘을말하는가?

나는물론아나키즘에도여러형태와사조가있다는것을알고있으며, 여기서는먼저단순히내가어떤아나키즘을지칭하려고하는지를말하고자한다. 첫번째로내가지목하는것은, 나는폭력을절대적으로거부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나는행동의수단으로폭력을불사하는니힐리스트 Nihilist 들, 또는아나키스트들은수용할수없다. 테러또는폭력에의지하는것은확실히해는할수있다. 스무살무렵나는파리의증권거래소앞에서하루를보낸적이있는데이렇게중얼거렸던것을기억한다. “자, 이건물에폭탄하나를설치하면자본주의전체를날려버리지는못하더라도분명상징과경의가치는있을거야!” 물론나는어디서폭탄을구해야할지전혀알지도못했기에그렇게하지못했다! 폭력에의지하는것은세가지상황에서가능한것처럼보인다. 우선, 러시아니힐리스트들의교리가있었다. 권력자들, 성직자들, 장군들, 경찰간부들을조직적으로제거하기시작한다면결국그들의직위들에공백이생기게되고국가는괴멸되어버릴것이며쓰러뜨리기쉬워진다… 이것은다수의현존하는테러리스트들이다소간지닌생각이다. 하지만이것은그권력자들… 그리고사회의저항및반응능력과소평가한것이다!

두번째상황은모든행동수단이무위로돌아가거나점점더강고해지는정부권력앞에서그리고흔들림없는경제시스템앞에서 (그러므로다국적기업의계획을저지할수도있는?) ‘체제’의공고함이무엇인지깊이알게되었거나점점더순응적이되어가는사회앞에서무력함을느끼게될때로, 절망의부르짖음으로써그러한억압들에대한저항과증오를공개적으로표시하려는극단적인행동으로서의폭력이다. “그것은현존하는절망이부르짖는소리다.”(J. Rictus) 그러나그것은또한다른행동의방법이없다는것, 다른희망의여지가없다는말이기도하다. 결국세번째측면은내가암시했던상징체계와징후이다. 상징적수단. 당신의생각보다당신의사회가훨씬깨지기쉽다는경고이자그것을침식해들어가는비밀스러운힘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 동기가무엇이든나는이러한폭력과테러에반대한다. 그리고

이는다음의두수준에서그렇다. 첫번째는단순히전략적이다! 비폭력적인운동들은제대로만수행된다면 (하지만, 이는잘훈련되어야하고잘짜인전략에의한것이여야한다!), 폭력적인운동들보다 (진정한혁명의시작에관계된것이아니라면!) 훨씬효율적이라는것을사람들은경험하기시작한다. 간디의성공을굳이기억할필요는없다. 우리에게더가까운한예로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Jr.) 이미국흑인들의인권을진전시킨주목할만한예가있었고, 반대로흑인무슬림들과블랙팬서 Black Panther 들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폭력에의했지만, 오히려마틴루터킹의성공에머칠했을뿐언어낸것은하나도없었다. 마찬가지로 1956 년의베를린, 헝가리, 그리고체코슬로바키아의모든폭력운동이실패했던데반해, 레흐바웜사 (Lech Wałęsa) 는수십년간자신의노동조합에제대로비폭력훈련을시켜결정부를굴복시켰다. 다음은 1900~1910 년의위대한조합활동가들의구호중하나이다. “파업은 Yes, 하지만폭력은 No.” 결국 (그러나물론이는많은사람이의문을제기할사안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줄루족의대추장부텔레지 (Buthelezi) 는완전히비폭력전략을가지고만델라 (코사족 Xhosa 의) 에맞섰지만, 내가가진정보에따르면 A.N.C.¹⁶에의해저질러진지리멸렬한폭력 (때때로흑인들간에도일어난다) 보다아파트헤이트의제거를위해비할데없이더많은것을얻었던것이다.

내가제시하는두번째이유는분명하게도그리스도교적인영역에속한다. 성서의관점에서본상식에따르면 (내가인정하는것처럼우리를몹시당황스럽게하는구약성서의전쟁들에도불구하고!) 행동은폭력이아니라사랑에서비롯되어야한다.¹⁷ 하지만권력자에대해폭력을행사하지않는다는것이‘아무것도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리스도교는항상권력에대해이의를제기해야하고경우에따라서는권력에맞서투쟁해야함을말하지않을수없지만, 사람들은“왕좌 (왕권) 와제단 (교회)”사이의동맹이있었던지나십수세기간이 (성서) 텍스트들을덮어두어왔다. 게다가교황은교회의수장이기보다는한국가의수장으로서더잘처신해왔다.¹⁸ 만일내가폭력적인아나키즘을배제시키면, 평화적이고반국가적이며반자본주의적이고도덕적이며반민주적인 (다시말해부르주아국가의변조된민주주의에적대적인) 아나키즘이남는데, 이아나키즘은모든권력에대한실제적인전복과기층민에의한발언과자율조직을목적으로삼아서설득수단을통해, 또소집단과조직망의생성을통해활동하면서거짓과압제를고발한다. 이모든것은바쿠닌에매우가깝지만미세하게다른부분들이있다. 예를들어선거에참여하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도투표를해야하는가? 그렇다면어떤정당의일원으로서견해를밝혀야하는가? 나는수많은아나키즘대표자들에동의하지만, 그두질문에는아니라고대답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투표한다는것그자체로의심의여지없이권력과부르주아지에의해주도되는잘못된민주주의에이미참여한다는뜻이기때문이다. 또한, 우파에투표하든좌파에투표하든결과는똑같다. 정당에참여한다는것은필연적으로위계화된구조를수용한다는뜻이며다시말해권력에참여한다는뜻이다. 그런데권력을얻으면어떤이유에서반드시부패하게되는

“신도없고주인도없다.”그리고“나는민나다, 전능하신하느님아버지”라고하는이두확신은내마음깊숙이자리잡는다.

어떤사람도다른사람의주인으로존재하거나다른사람보다우월한자로존재할수없으며아무도자신의의지를다른이에게강요할수없고, 나는완전히지고초高한주주로서의하느님에대해서는아는바없다.

사람들사이의위계질서를반대함

장피에르사르트르는각각의인간존재의유일한가치에대해말했다. “인간은어떠한가치를지녔건간에다른모든사람과같은가치를지녔다.”

그이전에예수는사람들사이에어떠한차이도두지않으셨고권력자들은예수의이러한태도를불편해하여그를죽이고자하며이렇게말하였다. “당신은당신이하는말이무엇인지모르고있소. 당신은인간들의차이를보지않기때문시오.”참고. 마태오의복음서 22 장

각자의삶은사회를구성하는모든법이전에존재한다; 복음서들, 마태오, 마르코, 루카그리고요한의복음서는권위들에대한항한예수의이야기들로가득하다. 그는끊임없이인생들에엄려를가져오는율법들을어긴다.

한예로이러한정신에서우리는통행의자유를허가하는서명을많은사람에게서받았다. 그것은다음의요구에대한것이다. “사하로프⁶²의아내엘레나보너 (Elena Bonner) 는그녀의건강에필요하다면서방으로건너갈수있어야한다. 아프리카의굶주린사람들은그들의삶에필요하다면유럽으로건너올수있어야한다.”

사람들과하느님사이의위계질서에반대함

적어도인간예수가“아버지”라고부르며우리에게도그렇게부르라고명하는하느님은결코주주로서 자신을나타내신적이없으며, 자신의의지를인간들에게강요한적도없고인간들이자신보다열등하다고간주하신적도없다; 예수에게있어아버지와아들의관계속에는어떠한위계질서도존재하지않는다. 그는말한다. “아버지와나는하나이며그가내안에, 내가그안에있다.”경쟁, 우월성, 동등성, 열등성의언어로부터만사고가가능한종교인들은예수가하느님과동등하다고하였기에그를고발한다. 그들은한인간예수가그의아버지와함께하느님이됨을이해할능력이없다.

(성서의) 창세기기자는하느님과함께삶을즐기고생명을창조하는즐거움을누리는대신, 선과악을알아신들처럼되고자야심을품은인간의잘못을본다. 그자신과자신의신분에집착한인간의이러한태도는모든불행의시초가된다. 인간은고독하고벌거벗었으며부끄러운존재, 서로고발하며자기를위해고통스럽게일하는존재가되어죽음을씨뿌리고서로지배하려고싸우거나두려움에서로잡혀지배를받아들인다.

지게되었으며콘스탄티누스는그의권력을확실하게하고자모든사람을필요로하였다. 그런데지성인들을포함한대중들과귀족들은이미옛종교로부터떠나있었다. 사람들은종교적으로‘모호한’상태에있었으며콘스탄티누스는그것을이용하기로했다. 그는공식적으로그리스도교에가담했으며, 이러한사실때문에교회는뒤통에걸렸다. 그것은사실상스스로뒤통에걸려든것이였다! 당시교회는귀족들이만든위계질서에의해운영되고있었다. 신학자들은이것에저항하고자하였다. 4세기후반바실리우스(Basile)는전쟁중에서사람을죽인자는살인자이며전쟁에참여한병사는3년간공동체에들어올수없게하라고말한다. 그런데전쟁은계속되였다! 그러므로간단히말해군인은결국완전히출교된다는것이다. 그러나그것은저항하는소수의견이되고만다. 다수의교회지도자들은그리스도교가공식종교가되였다는사실로부터그리고교회가거대한특권을얻게되었기에결국굴복하였다.

314년황제가소집한아를르 Arles 교구회의에서는국가에대한봉사및군대복무에대한교리가완전히뒤바뀐다. 이회의의세번째“법령”은군대복무를거절하는병사또는상관에게항명하는병사는출교된다는것이였다. 일곱번째법령은국가의그리스도인공무원을합법화하였으며, 이교행위만을금지할뿐이였다.(예를들어황제예배를드리는데.) 그리스도인관리들및정치를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요구된것은교회의훈련을받으라는것뿐이였다.(이훈련은또한모든살인과폭력을삼가도록요구하는것이였다.) 몇몇해석자들은아를르회의가금지한것은살인뿐이였다고평가한다. 그러나거기에군인의역할에대해서는명시된것이없다! 사실상국가는교회를지배하기시작했으며처음의근본적이던것과는완전히반대되는것을교회로부터원했고이 314년의회의가끝내버린것은반反국가주의적이고반反군국주의적이었던그리스도교운동이었고, 오늘날의표현으로는아나키즘이였다.

☒ 증언:

로마가톨릭사제이면서도아나키스트가된다는것

아드리앙뒤쇼살 (ADRIEN DUCHOSAL)

나는스무살부터사제의일을수행하였고인구 2 천의한교구의주임사제이기까지했다. 나는한기계제작회사에서일주일에서하루간일한다.

여기서나는많은사람들에게아나키스트로알려졌다. “그리스도인과아나키스트, 이두실천을어떻게일치시킬수있습니까?”라는질문을받는다.

나는그리스도신앙과아나키즘의확신간에어떠한갈등도느끼지못할뿐만아니라나자렛예수에대한나의지식은나를아나키즘으로인도하며때때로그것을실천할용기마저부여한다.

지를잊지말아야한다. 밀레랑 Millerand 사건¹⁹으로부터 1900~1910 년사이에서사회주의자들과조합책임자들이권력을잡았던때, 사람들은그들이조합주의 Syndicalisme 의가장나쁜적들로변해가는것을확인했다. 클레망소 (Georges Clémenceau)²⁰ 와브리앙 (Aristide Briand)²¹ 의예시만으로도충분할것이다. 그것이아나키즘및환경주의자들에게가장가까울수있었던운동을하던내가정치적참여에항상반대했던이유였다. 나는독일녹색당운동에전적으로반대했으며, 다른한편으로프랑스에서환경주의자들의정치적참여의결과가어떠했는지도확인할수있었다. 그것은경쟁하는여러조합운동간분열이자주요한“세명의지도자”들이주도한환경주의자들간공언된적대감, 잘못된질문들(예를들어전략술같은것들) 을무찌르기위한바른목표의식의상실, 잦은선거운동을위한비용의낭비등인데, 결국아무결실도맺지못한다. 내가보기에환경주의자들이선거에참여한것은그들영향력의대부분을잃어버리게하는행동이였다! 우리사회에서중요한어떤것도변화시킬수없는정치적인게임에참여하는것은강하게거부해야한다. 우리는정치적목소리를통하여그것이무엇이든간에변화시킬수있다는희망으로이해관계들과기구들을서로통합시키려고하지만그것은너무복잡한일이다.

다국적기업들에관련된다음의한예시만들어도충분하다. 좌파는집권하더라도전세계적인경제체제의연대에막혀한국가의경제체제를바꿀수없다. 단지권력에도달하기위해그런말을한것은아니었겠지만, 혁명이전세계적이어야한다고말했던사람들에게도일리는있었다. 그러면‘행동’하지말아야하는가? 이것은급진적인주제를불들여온사람들이늘려온질문이다. 그것은오직정치적인행위만이유일한행동의방식이라고믿는것처럼들린다! 나는아나키즘이우선‘양심에의한거부’라는뜻을내포한다고믿는다. 우리사회를구성하는자본주의(또는퇴화해버린사회주의) 그리고제국주의(부르주아지든공산주의든, 백인이든황인이든흑인이든간에마찬가지로) 에있어서, 양심에의한거부는병역에만한정될수없으며우리사회에부과된모든강요와의무들에대해서도유효하다. 세금을거부하는것, 백신을거부하는것, 의무교육을거부하는것등역시마찬가지다. 물론나는교육제도에호의적이다! 그러나아이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교육이라는조건에서, 그리고분명히아이들이주어진지식을배우기위한교육일때, 의무가아니라는조건에서그러하다. 교육형태는어린이의재능에근거해서구성되어야한다.

백신의경우, 하나의주목할만한예가있다. 한친구(법학자이자수학학사이고아나키스트또는그에가까운...) 가귀농을결심했다. 그는아주거친지방인오프루아르 Haute Roire 의고원에서십년전부터목축을하고있다. 그런데(내가이야기를굳이하는이유는바로이것이다) 다른가축떼들과멀리떨어져있을뿐아니라정성을다해기른그의가축이아프타열병에걸릴이유가전혀없다고믿었기때문에그는아프타열병백신을자신의가축에게접종해야하는의무를거부했다. 그리고일어난일들은매우흥미롭다. 정부수의당국으로부터조사를받았고벌금을부과받았다. 게다가특히백신의사고및위험들에대한중요한자료를준비하다

가법정에고발당하기까지했다. 그는처음에는유죄판결을받았다. 하지만항소했고, 생물학자들및주요수의학자들의보고서를얻어냈으며, 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는쾌거를이루어냈다. 이는최근의숨막히는규제에서자유공간을찾아낸 아주좋은예시이다. 그러나그러한것들을위해서는먼저마음으로그것을원해야 하며행동을분산시켜서는안된다. 논점을잘찾아서공격하고당국과규제를물려서게하며이기는것이다.

우리는 **코트아키텐 Côte Aquitaine 개발을 위한 정부당국간협합 M.I.A.C.A.** 에대해투쟁한경험이있다. 갖은노력을다해지역주민들에게는재앙이되었을몇몇계획들을무산시킬수있었지만, 국가최고행정재판소등에수없이소송을걸어야했다.²² 물론이는아주미미한행동일수도있지만, 다수가주의깊게동참한다면국가의권력남용을저지할수있다. 데페르 (Gaston Defferre) 에의해요란하게진행되어온‘분권화’가자유수호를더어렵게만들었다는것을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 왜냐하면, 오늘날공공의적은국가가아니라어디에나존재하는무소불위의지방정부들이기때문이다.²³ 그러므로우리가저항해야할권력은어디에나있으며물론경찰또는사법당국에역시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우리는다수권력의이데올로기적거짓말들을벗겨내야하며, 특히민주주의체제들이당연하게생각하는법치국가론 Etat de droit 은처음부터끝까지허구임을밝혀내야한다. 국가는그자신의규칙들을존중하지않는다! 또한국가의모든선물에대해의심을거두어서는안된다. 우리는항상‘누가돈을대고누가명령하는지’기억해야한다. 나는 1956 년젊은이들의부적응예방클럽들에대해이야기했던주목할만한시도에도대해생각한다. (대체로적응을못하는것은젊은이들이아니라사회그자체라는내용의이야기였다)²⁴ 그클럽들이여러곳에서재정지원을받았고보조금도받았던만큼당연히아주잘진행되었고성과도좋았지만, 그것은젊은이들을사회에적응시킨다는측면에서가아니라그들의인격을형성하고파괴적인활동들(가죽점퍼를입고마약을하는등등) 을보다건설적이고긍정적인에너지로바꾸어준다는측면에서였다. 국가가재정지원을해주면서모든것이변화되었고, 모루아 (Mauroy) 장관의주도아래예방활동이창안되었으며, 국가예방위원회가설립되었지만결과는참담했다.

그렇지만매우중요한강조점은이러한시도들이계속되어야한다는것이다. 아주중요해보이는행동하나를제시하고자한다. 세금에대한거부다. 납세자가세금을더는내지않기로하거나적어도군사지출에서사용되는퍼센티지의세금을내지않기로한다면거기에아무런문제도없음은자명하다. 그는유죄판결을받을것이고잡혀가는등의고초를겪을것이다. 그러한시도가가능해지려면시도를하는사람의수가많아야한다. 만일천명또는이천명정도의납세자가그러한시도를한다면국가를난처한상황에빠뜨릴수있으며특히미디어를활용하기까지한다면더욱그렇게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하려면오랜준비, 캠페인, 팸플릿등이필요하다. 또한, 즉시실행할수있지만, 여러참여자들이요구되는한예는공교육바깥에서그러

그러나 3 세기이전의실천으로돌아가자. 그것은테르툴리아누스의생각으로대표되는것으로서국가및제국은반드시반反그리스도적이므로곧하느님의적이라고말하는책들의가르침에따라양심에의한완전한거부를권고하는것이였다. 다음의인상적인구절을보라. “황제들이그리스도인이되는것이가능했거나그들이세상에서필요없는존재였다면그들은벌써그리스도인이되었을것이다.”(신약성서에서세상이란모든하느님의적대적인것들을의미하는표현이다!) 실제로이러한거부 (황제예배참석을거부하는것은논외로하더라도) 로인해문제는군대에서일어났다.

이주제에대해서는역사가들의견해가크게엇갈린다. (드물지만) 그리스도인군인들이있었다는기록이남아있으나아주적은수였던것으로보인다. (그중일부는징집된병사들이었을것이다.) 기원후 150 년까지는군인이었으나후에그리스도인이된사람들은군대를떠났으며, 처음부터그리스도인이었던사람들은결코입대하였던적이없다고보는것이더확실할것이다. “교회지도자들과전체그리스도교공동체가탐탁지않게여겼음에도”그리스도인병사의수는 3 세기 후반부터증가하기시작한다.(RYAN, Le Refus du service militaire par les chrétiens, 영어로된책.) 한편그리스도인병사의수가증가했을때에도문제는있었다! 공식행사때병사가머리에월계관쓰기를거절하는것이한예이다. 그와마찬가지로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는어느날미래를점치려고희생제물을드렸으나실패하였다. 거기서지목된사람들은바로그리스도인병사들로십자성호를그음으로써실패를유도하였다는것이였다! 기원후 250 년경이러한예배는사실이었고강요에의한것이였으며선택의여지는없었다. 그리고 2 세기후반이후“군인순교자”가강조되기시작하는데, 다시말해강제로징집된그리스도인병사가전쟁중이교예배를거절하여죽임을당하는경우가생겨났다는것이다. 기록된바로는사형집행자로고용된병사들이동료를처형해야하자갑자기회심하여칼을버렸다는이야기조차있었다! 락탄티우스또는테르툴리아누스에의해인용된예들은끝이없다. 그리고집단적으로반反군국주의를표방한그리스도인들도있었다. 여기공식문서가있다. 3 세기초교회의‘규칙’을담은“히폴리투스에의한사도전승”에서는, “칼의권력을가진자또는도시의관리는그직에서사임하게하거나출교하십시오. 예비자또는신자가군인이되고자하거든교회는그를출교하여야합니다. 그가하느님을업신여겼기때문입니다.”상황이이러했으므로집단적학살의시대에서형을당한그리스도인들의수는증가할수밖에없었으며“군인성인들”로불렸던사람들이양산될수밖에없었다.

그리고는, 간과할수없는반전이찾아온다. 기원후 313 년의엘비라 Elvire 교구회의는공직을받아들이려는모든신자는평화를사랑하는사람이라할지라도직을수행하는동안에는교회에들어들수없다고결정한다. 모든권력에참여하는것은강제성을내포한다는것으로단죄된것이다. 그리고일어난일이콘스탄티누스황제의회심 (312~313) 이다. 전설이된회심이였으나정치적계산의결실이였음이분명한이회심으로, 그시대그리스도인들은무시할수없는정치적인힘을가

가아닌것은이본문들이교회다수에의해인정된“거룩한책”에속하는것이기때문임을잊어서는안된다. (공의회가의결한것이아니라! “기초”적인… 사조에따른것이다!) 여기서우리는첫 3 백년간“반역의시민”이었던그리스도인들이가졌던사상을실제로적용할것이다. 양심에의한거부문제를다루기에앞서극단적인갈등의쟁점이자간과할수없는여러문제점을지나칠수는없다. 우선 2 세기부터그리스도교사상의모든비판중켈수스는 (그의연설원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인간이라는종류의적”이며그들이로마의평화라고불리는로마의질서에반대했고, 그렇기때문에로마가낳은이“인간종류”를증오했다는생각을발전시킨다.

두번째언급은조금더나중의것으로그리스도교가소중파로제국에침투하여, 그리스도인들이관리가되거나군대의장이되어제국을안으로부터약화시킨다는고발에대한것이다. 그리고그것은배교자율리아누스황제가탄식한이유였다. 한세기전부터로마의행정조직은퇴보했으며로마의군대는전선에서패배를거듭하였는데, 그모든것이그리스도인들때문이라는것이다. 그리고여기서율리아누스는우리에게더는효력이없는한예시를제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이사람들에게더는로마의전통적인신들을존경하거나섬기지못하게하여그들이로마를버리게되었으니, 이것이바로로마가쇠퇴하게된이유로다. 예전의신들에게로돌아오라. 그리하면로마는그위대함을되찾을것이다!”이이야기는이쯤하겠지만, 제국후기의모든역사가가알고있던정확한사실은그리스도인들이정치문제에서도군사문제에서도 **더는관심을두지않았다**는것이다!

이는다음의두수준에서그러하다. 첫번째로, 수백년간모든로마의지성인들은도시와제국의법제도와조직을만들고발전시키는데전념했다고알려졌다. 그런데 3 세기부터이제국의지성인들은그런부분에전혀관심이없었고신학에열의를가졌던것이다! 두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관리로서도군장교로서도그기능을행사하는것을원하지않았다. 그리스도도교가사회의낮은계층에서믿어졌던이상 (우선도시의빈민들, 그리고해방노예들, 노예들의순서로확산하였다.) 그것은큰문제가되지않았으나그리스도교가부유한‘계층’및‘지배층’으로확산하면서심각한문제로발전했다. 그리고적지않은문서에서사실상도시로부터“원로원의원”도, 지방으로부터지방장관도, 군사관리도… 모집할수없었음이나타난다. 이는그리스도인들이이모든것이되기를거절했기때문이다. 사회가이러한현상을좋아할수없었음은당연하다. 예를들어제국이원로원의원이되라고강요했을때 (다시말해도시하나에서장이한명은있어야한다는것), 많은사람이시골로멀리도망가서농장주인으로살아가는쪽을택했던것이다. (그들은지방에살곳을다가진사람들이었다!) 군대에는황제들이군장교를모집하기위하여외국인, 즉“야만인”을찾아야했다! 군대의여러역사가는그리스도인들의이러한일반적인기피가 4 세기이후로마최퇴의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였다고말할정도였다.

나또한‘공인된’사교육을통하여부모들에의해조직되는학교다. 그것은단순히교원자격증을가진몇명의지도로그들이아는분야에대해확신하는몇십명정도의부모가그들끼리만조직하기로마음먹어도가능한학교다. 쿤-방디 (Cohn-Bendit) 수사에의해세워진생-나제르 Saint-Nasaire 고등학교는다음세참여자주의주도로움직인다. 학생, 부모, 교사…. 이것이가능해지려면순수하게개인적인계획위에서권력 (정치권력, 금권, 행정부의권력, 사법부의권력등) 을배제하고이루어져야한다.

개인적으로재미있다고여기는한예를제시하려고한다. 전쟁중우리는시골로피난을간적이있었다. 2 년후, 우리는그시골마을사람들의신뢰와우정을얻게되었다. 그런데한신기한이야기가시작되었다. 내가법을공부했다는것을알았던주민들은내게법률상담을하러오기시작했을뿐아니라분쟁과소송을해결해달라는의뢰까지했다! 그러니까나는변호사, 조정판사그리고공증인에이르는역할을담당했다. 물론이일들 (무료였다!) 은법의관점에서본다면아무가치없는일이겠으나이해당사자들에게는아주중요한일이었다! 또한, 문제와분쟁등등의해결규정을만들어모두의사인을받았을때, 모든사람은이규정을정부의법령들만큼이나권위있는것으로인정했다…. 물론권력을거부하지않고적극적으로보장할것없는사례에서아나키즘이데올로기의확산이필요하다는것을상기할수있다.

그런데최근정치사상의절대적인공백속에있는우리시대는이러한예시에매우관심이었다고나는생각한다. 아직도 19 세기에살고있다고스스로착각하는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적인어떤것도가지고있지않은사회주의자들, 그리고후기스탈린주의에서조금더벗어나지못하는웃기는공산주의자들사이에서, 그리고동업조합의방어²⁵라는이해관계외에는어떤다른관심도없는노동조합들앞에서, 이러한거대한 (정치사상의) 공백속에서더욱근대화되고받아들일만한정치적인입장들 (환경주의자들중일부및조합관리주의자들중의몇몇) 과연대한다면, 아나키즘은일어설기회를얻을수있다.

내생각은여러아나키즘의태도중하나이며, 나는아나키즘적투쟁이선이라고 믿는다. 진짜아나키즘과내입장은어떤점에서차이가있을까? 오랜세월우리의 관심사였던‘종교적인’문제를제외한다면, 차이점들은대체로다음과같을것이다. 진짜아나키즘은국가나권력, 기관, 위계질서등이없는아나키사회가실제로현실화될수있다고믿지만, 나는그렇지않다고믿는다. 다시말해, 아나키즘투쟁, 아나키사회를향한투쟁이문제의본질이며, 그러한사회가실제로실현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것은다음의두가지이유때문인데, 두번째이유부터설명하겠다. 사실상권위또는제도가없는사회의이미지또는희망은, 인간은나면서부

터선하며 그것을 부패시키는 것은 사회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언도 있었다. “절도를 부추기는 존재는 바로 경찰이며, 경찰을 없앤다면 절도 역시 사라질 것이다.” 사회가 개인을 부패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에는 나 역시 동감한다. 예전의 사회는 엄격함과 강요와 억압이 지나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시절 사람들은 폭력 또는 테러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부패는 더욱 다른 의미에서다. 그것은 인간을 소비로 밀어넣는 광고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도를 시도한다), 고빠폴린 포르노 그래픽, 미디어에 노출된 일상화된 폭력에 의한 것이다. 미디어는 범죄의 증거가 뒷에 대한 중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사회’ 일수는 없다.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이 이에 대한 중요한 한 예이다. 마약 소비는 늘어나고 공급은 막혀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1970 년 무렵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정책을 채택하려 했다. 마약 거래에 붙는 불법적인 중개인 수수료 루트를 끊고자 (또한, 금단의 열매에 대한 유혹을 없애려고) 마약 사용을 허가하고 의료적 감시를 통해 정부가 처방전과 함께 무료 마약 공급 센터들을 열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마약 거래를 (딜러들은 물론이거니와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등의 부작용들도 함께) 끊을 수 있을 것이며 마약에 대한 욕망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은 마약의 수도가 되었으며 암스테르담 중심가는 마약 중독자들의 무시무시한 집결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하려고 억압을 멈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와 반대되는 믿음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러한 확신은 ‘죄’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적 개념과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한 확신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오랜 그리스도 교의 오해는 죄를 하나님의 도덕적 잘못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본다면 틀렸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로 인한 결과다. 내가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교적인 관점 또는 도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처한 사회 또는 그가 받은 교육이 어떠한 인간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은 탐욕과 권력 추구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며 항상 존재한다. 만일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부여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욕심낼 것이다. 이 탐욕은 매우 거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가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다른 것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이다. 지라르 (René Girard)²⁶ 는 이 탐욕의 결과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였다. 서로 힘을 겨루며 경쟁하는 사람들 또는 탐욕에 젖어 같은 것을 놓고 경쟁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도 만들어 낼 수 없다. 결국, 이상적인 아나키즘 사회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 또한,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오랜 기간에 걸친, 한때 선했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라도, ‘과도기’를 염두에 두어

그러나 마이요의 저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다. 바울로는 자신이 이미 여러 번 투옥되었다고 썼다. “그는 정치적인 간들과 순진한 사람들을 혼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로마 당국에의 해죽임을 당한다. “바울로의 어려웠던 삶과 죽음은 이 8 장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마이요는 이 8 장을 편지의 일반적인 컨텍스트에서 이해하려 하지만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 배경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바울로의 편지는 완전히 “인류 — 역사에 — 있어서의 — 하나님의 — 구원의 —正義”를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로는 인간 현실의 모든 면면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거기에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 및 이스라엘 백성 (바울로는 줄곧 그것에 대해 말한다) 외에는 없다! 정치도 있고 인간 사회도 있지만, 바울로는 여기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인이 ‘폴리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 및 이스라엘 백성-역자주) 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의 구원의 정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마이요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주침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관리의 체제 하에서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였음을 강조하며 묻는다. 재판관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세금 징수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바울로는 “경비대사관들”(필립비 1,13) 과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필립비 4,22) 에 대해 말한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마공무원은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요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다른 주제를 강조한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문제제기다. 그러므로 바울로는 여기에 좀더 강조점을 ‘덧붙이기’를 원한다. “사회 구조, 관리들 그리고 네로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의 역동성 안에 포함되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 또는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그러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요는 강조한다. “그럼에도 바울로는 악마로부터 조종당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들은 ‘항상 선을 — 위하여 —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악을 — 위하여 — 일하는 — 사람” 이 된다면 우리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순종은 어떤 순종을 베키는데 있지 않다!”

양심에 의한 거부자들⁶¹

지금까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말한 것처럼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서 본문들을 고찰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증언이나 견해

⁶¹ 이 단락에서는 J.-M. HORNUS 의 놀랄만한 저작을 요약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Evangile et Laborum*, Lalo, 1960.

기준을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긍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하느님을 구실삼을 권리가 없다! 그것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은 오직 하느님 앞에만 놓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기존의/한정된) 질서를 오직 하느님의 눈앞에 놓는다. 그것은 권위들에 대한 모든 열광, 올바른 관계, 환상, 열정 등을 걷어버린다! 그리고 카를 바르트는 (매우 자유롭게!) 12 장 10 절을 인용한다. 하느님은 “정의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준엄한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지난 세월 동안 교회들이 국가에 경의를 표하며 인간의 대의를 배신하였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 혁명가는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자 하며 선하고 형제 사랑에 충만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고자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유일한 정의 (또한 올바른 관계) 와 인간의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하느님만이 세울 수 있고 세우기 원하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알퐁스 마이요

마이요는 카를 바르트 급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뛰어난 성서 주석가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마이요는 매우 재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반악물법주의적” 저작들을 통해 오경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유일한 “율법”은 사랑이고, 예수가 한 일은 인간의 해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울로가 사회 및 정치 제도에 관련되어 어떻게 율법주의자이자 법률주의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로의 주장은, 정치 구조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우리를 악으로 이끈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로는 모든 마니교적인 선악이원론을 거절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우두머리, 관리들 등은 그들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건 간에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또한, 바울로는 다음 의 본문에서 말한다. “현존하는 권위들은...” 그러므로 마이요에게 있어 그것은 그 시대의 권위들을 뜻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는 권위들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의롭다고 믿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권위들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바울로가 강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양심의 동기에 의해서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순종이 맹목적인 것도 체념에 의해서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를 정치 제도에 속한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⁶⁰

야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닳아 내려져 있던 경향들이 한 세대의 정도의 기간만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틀을 갖추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 선한 목소리로 인도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굳건한 정치를 이끄는, 필요한 권력 기구들이 자리잡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 ‘국가의 소멸’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지금 이미 이론을 적용한 시도들이 이미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지복 천년설을 믿던 사람들 및 “신국神國”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너져 버릴 권력 및 권위들을 실제로 대체할 자치 제도를 낳는 바닥으로부터의 새로운 제도들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생겨나는 것이 내게는 더 올바르고 가능해 보인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880 년에서 1900 년 사이에 있었던 많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anarcho-syndicalistes 을 돌이켜 본다. 그들에게 노동자 기구들, 노동 조합들 그리고 노동자 연금 조합은 부르주아 국가 제도로부터 baton을 이어 받은 것이어야 했다. 그것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했으며, 연맹들은 지역적이어야 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맺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1914 년제 1 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을 무렵 한편으로는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을 없애 버리기 위한 정책이 논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역시전임자들**이 지명되는 그 시점부터 생겨나는 급진적인 돌연변이 일뿐이라는 옹호가 있었다. 거기에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 연금 조합들은 완전히 처음의 성격을 잃어버렸고, 프롤레타리아 엘리트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요약하자면, 나는 ‘순수한’ 아나키사회를 믿지 않지만, 새로운 사회 모델을 창조할 가능성은 믿는다. 유독 오늘날,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창안되어야 한다. 노동 조합들, 노동자 연금 조합, 분권화, 연맹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낡았으며 변질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다. 또한, **모든** 정치 형태들 역시 낡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회주의, 선거 시스템, 정당들 역시 독재 정부나 마찬가지로 참을 수 없는 유명무실하다.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 부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며 구석구석으로 확산한다. 사실 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 제도들, 정치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민주주의, 나폴레옹의 국가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힘, 권력, 권위, 사회 통제가 증가하게 하는 정부 시스템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술 덕분이다. 문제는 기술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기술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힘의 원천이 기술 인체제가 문제이며, 기술자들은 영감을 제공하고 잠재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 관료주의, (광고 또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선전물, 개인의 순응, 모든 것을 “생산자-소비자” 관계로 변형시키려는 명백한 의지 등등의 증가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솟구치는 증가를 통제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문제 조차 제기되지 않는다.²⁷ 게다가 교회들조차 한때 그들의 사명을 배신했다. 정당들은 한 세기 전의 희곡을 위한 연극 활동에 전념했다.

그리고내가아나키즘을유일하고진지한문제제기이자행동을위한첫발을내딛는양심의수단이라고여기는것은이러한상황속에서다. 내가진지한문제제기에대해말할때그것은아나키즘이라는권력의강화로변질할가능성이없기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경우, ‘프로레타리아독재’라고말할때그것은나머지사회위에존재하는한권력을전제하는것이며, 이권력은소수에대한다수의권력에관계된것으로, 그원래의의미는인간위에군림하고인간의힘을거부하는것이다. 다행히나는이미전술한것처럼완전히그것(권력의존재-역자주)을막을수는없다고생각한다. 하지만우리는투쟁할수있으며, 문제를제기할수있고, 모임을조직할수있으며, 또한고발할수있다. (우리가고발할것은권력의남용이아니라권력그자체다!) 그리고오직아나키즘만이마르크스주의를가장잘구현할수있는사상이다.

그러므로내가보기에는아나키즘운동을추진하는것이상으로필요한것은없으며우리는그것을널리홍보하여야한다. 사람들이상상하는것과는달리, 이전의세대에서보다훨씬더많은사람이들을준비가되어있다. 대부분의사람은자기를방임하고마음이단혀있으며폭력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호텔레비전에걸들여져있으며정치적연설이나정치적삶을완전히조롱한다. 그들은아무것도희망할것이없다고생각한다. 그리고거꾸로그들은관료주의및번잡한행정절차의틀안에서신음하고있다. 이모든것을고발하라. 그러면당신은대중의귀를얻게될것이다. 한마디로다시말한다면, 국가와관료주의사회의권력이증가할수록, 개인(다른말로하면인간)의유일하고최종적인방어로서아나키즘의필요성은더증가한다. 아나키즘은그날카로움과용기를다시찾아야하며, 더 나은미래를목전에두고있다. 그러므로나를사로잡는것은바로이러한아나키즘이다.

2. 그리스도교에대한아나키즘의불만들

여기서는 19 세기그리스도교에대한아나키즘의공격들을되짚어보고, 있어서는안되는것을덮으려는시도없이나자신을설명하고자할것이다. 이것은그리스도교를‘정당화’하려는시도가아니다. 그러나나는먼저“그리스도교 Christianisme”(다른것들과마찬가지로“주의 isme”로서의그리스도교) 또는그리스도교세계 Chrétienté 그리고그리스도신앙및성서적근거사이에서오랜설명을시도해왔던이의제기를상기하는것으로이야기를시작하려고한다.²⁸ 나는여러분이다음두가지유형의그리스도교에대한공격을구별할수있으리라믿는다. 본질적으로역사적인그리스도교와형이상학적질서에따른그리스도교.

* * *

첫번째근본적인증명은, 모든종교는어떤종교이든중심주제는 **진리**인만큼전쟁과갈등의근원이며, 종교에서비롯된‘전쟁’은순수하게정치적이거나군주의

1. 카를바르트

1920 년그의신학적선언이었던위대한 『로마서해석』에서그는사회를위해필수불가결한질서가존재하며정치제도들은이러한질서의일부분이라고전제하며논의를시작한다. 질서를전복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본문이말하고자하는것은그러므로아래와같은것이다. “혁명을반대함.” 그러나그렇게말하는것은그자체로제도들의“정당하지못함”을의미하는것이다. 하느님의질서를찾는우리는모든기존질서의불의함을확인한다. 문제가되는기존질서는질서의나쁜면이아니다. 그것은정의를향한지혜상처를입히는사실이다. 모든권위는그조건들안에서하나의독재가된다. 그럼에도혁명적인간은사실상악에의해정복당한다. 왜냐하면그역시그자체로정의를대표하고자하며즉시독재로변해버림으로써정당성을찬탈하기때문이다! 악은악에대한해답이아니다. 기존질서에의해침해된정의의감정은그것의파괴로복구되지않는다! 혁명가는그영혼안에“불가능한가능성”즉, 진리, 정의… 죄의용서, 형제적사랑, 죽음으로부터의부활…을가지고있었다. 그런데그는또다른혁명을일으켰다! 그것은중오의가능한가능성, 복수, 파괴에서비롯된혁명이다! 그는 **진정으로혁명을꿈꾸었으나일으킨것은다른것**이었다! 우리의본문은기존질서를위해서는어떠한말도하지않지만, 기존질서의모든적을거절한다! 왜냐하면오직하느님만이기존질서의불의함에대한정복자로확인되기를원하기때문이다. “권위에순종함”에대하여권고하자면그것은순전히부정증정의표현이다. 그것은하나의철수이며참여하지않는것, 연관되지않는것이다. “혁명이항상기존질서에대한(정의로운) 단죄일지라도그것은어떤상황에서도반란의행위여서는안된다. 그것이촉발하는갈등은하느님의질서와기존질서사이의갈등이다.” 결국, 반란은항상기존질서와같은성격을가진하나의질서를재구축하며그렇기때문에이렇게말할수있다. “회개하라. 하지만더이상반역자가되지는마라.”“순종하라는말은인간의정치적계산이 **그자체로** 얼마나거짓된것인지있으라는말이아니다.”

그런데하느님의혁명이진정한정의의침입증하므로기존질서를무너뜨리려면바르트가여기서말하는것과같이 **어떠한환상도없이** 그것을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모든“국가, 교회, 사회, 긍정적인정의, 가족, 학문은꿈임없이헌금및장엄한속임수들을통하여공급되어야하는인간의신앙에의지하기때문이다. (원문대로옮김) 이모든제도로부터그열정을빼앗으면그들은기근에서달리게될것이다.”(우리는여기서예수의태도에서밝혀낸방향성을다시발견한다.) “혁명에반대하는것은진정한혁명에대항가장나쁜준비다.”(카를바르트에게그것은하느님의뜻이며하느님의나라다.) 마지막으로모든것에우선하는우리의본문은그자체로하나의전제조건이다. 바르트가말한바로는그것은외형적으로는질서의기초다. 그것은“인간에게주어진모든권위는하느님에의해한정되어있으며그것은그의시작이자그의마침, 그와의올바른관계이자그의정치, 그의긍정이자그의부정이라는”것이다. 하느님은기존질서안에서악한것이정말악하다고할유일한

든 (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그들의존재여부가아니라그시대의확신에대한것이
다) — 에대한그의진정한승리다. 왜냐하면, 오직그만이완전히하느님의뜻에순
종하였으며 **오해 scandale 에연루되어**정죄와죽임까지받아들였기때문이다.
(예수는자신이당하는일을전혀이해하지못한다. 나의하느님, 어찌하여나를버
리시나이까?) 그는자신의이해와자신의사명을의심하지만, 하느님의뜻은의심
하지않고절대적으로그것에순종한다. 비그리스도인은하느님앞에서오해로가
득차이러한죽음을그에게요구한다.... 그러나문제는, 사랑은어디까지갈수있는
가, 누가그자신의죽음에이르기까지절대적으로하느님을사랑할것인가하는것
이다. 그것은이미시험이며아브라함에게서끝난것이고또한움을시험하여일으
킨분노이기도하다. 다만예수만이끝까지순종하였다. (순종하지않을완전한자
유가있었음에도!) 그리고인간의한계를넘어하느님을사랑한이것때문에그는인
간들의힘을“무력화했다!”이제세상을지배하는귀신들은다시는없으며독립적
인“엑수시아”도없다. 이제그것들은완전히그리스도에게종속되었다. 그때로
부터그들은당연히다시는반역할수없으며, 무엇보다도정복을당한것이다. 그리
고정치적으로그것이의미하는바는정치권력옆에, 또는그너머기생하던엑수시
아 exousia 가정복당했으며그결과 **정치권력은결코이전의지위를가질수없고**
항상상대적일뿐이며상대적일뿐인이것으로부터기대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
는데다더는문젯거리도되지않는다는것이다! 여기그형식을얼마나상대화시켜
야하는지보여주는바울로의구절이었다. “(사람들이절대화해온) 모든권력은하
느님에게서온것입니다.”그렇다! 그러나모든권력은그리스도안에서정복되었
다!

부록

☒ 카를바르트 (Karl Barth) 와알폰스마이요 (Alphonse Maillot) 의로마 서 8 장 1~2 절해석

나는모든신학자및교회가이본문을국가에대한절대적인진리로해석하는데
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보여주기위해중요한두저자의각해석을매우간략하
게소개하고자한다!

자의에의해서일어난것들보다결국훨씬더심각하다는것이다. 반대자는악과거
짓이육화肉化된존재이므로완전히제거되어야한다. 항상그래왔다. 전통적인
종교에서뿐만아니라그것을대체해온국가종교, 공산주의종교, 돈을숭배하는종
교, 등등의새로운종교에서도예외는아니다. 종교신앙의이름으로자행되어온모
든전쟁은한때로마의전쟁이그랬던것처럼‘속죄없는전쟁’이다. 그러나악을말
소해버릴것처럼끔찍했던전쟁들에서조차도그홀린피로인해악이말소되지않았
다. 우리의전쟁은어떤예외도동정도없이적을짓이겨야하기때문에속죄없는전
쟁인것이아니다. 이러한전쟁은성서에서도발견되는데, 유대민중의적에대한전
멸을의미하는 **헤렘 Hérem** 이선포되었으며, 이는여자, 아이그리고가축들까
지죽여야함을뜻했다. 물론이헤렘에대한본문들은성서를진지하게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는아주강력한근거다! 또한, 이슬람이이그는전쟁이있는데그원칙은
다음과같다. 세상에서태어나는모든아이는그태어난사실만으로무슬림이다. 그
가무슬림이기를거부한다면그것은부모의책임이며그사회의책임이다. 모든무
슬림의의무는타인을진정한신앙으로이끌고오는것이다. 그리고반대로이슬람
지역 (oumma: 공동체) 의범위는전세계이다. 어떤것도이신앙에서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이세상은거룩한전쟁 djihad 의원칙에따라정복되어야한다. 이
는내가주장하는것이아니라자명한사실이며, 내가상관할문제도아니다. 그럼에
도, 이슬람은열성신자들을가진어떤다른종교들보다확신에찬견해가있으므로
무제한으로죽이고또죽일준비가되어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전쟁들이있다. 이것은그기원들로부터비롯된것이아
니라카롤링거왕조와함께시작된것이다. 로마 (콘스탄티누스이후) 의그리스도
교황제들이수행한전쟁들은어떠한종교적인성격도가지고있지않다. 그것은 4
세기전부터수행되어온전쟁들과같은성격을가진것으로, 제국의국경을방어하
려는것이였다. 제국의거대한해체및메로빙거왕조시대이후종교전쟁 (8 세기)
의개념이생겨난다. 그리고이그리스도교의거룩한전쟁들이한세기전일어난이
슬람의모방이라는가정을나는감히하고자한다. 전쟁은그리스도교세계에서정
복전쟁의수단이되었으며이교도를그리스도인이되도록강제하고자함이였다.
그정점은“외방의주교”로봉헌된샤를마뉴 (Charlemagne) 였으며잘알려진것
처럼작센인들을향한그의모험에서그특징이잘드러난다. 작센일부를점령한샤
를마뉴는작센사람들을십자가앞에세운다. 그리스도인이될것인가아니면죽을
것인가. 알려진바로는 6 천의작센사람들이그렇게학살되었다. 그리고이어진것
은오래계속된십자군전쟁, 알비파와카타리파²⁹ 에대한그리스도교세계내부의종
교전쟁, 프로테스탄트와로마가톨릭간의 16~17 세기에있었던‘종교전쟁들’과
같은끔찍한전쟁들이었다. 크롬웰 (Oliver Cromwell) 의전쟁들과‘식민주의’
전쟁들에이르기까지진리또는종교는변명, 구실, 이데올로기그리고정당화까지
나지않는다. 엄밀하게말해그것은종교전쟁이아니라종교가살짝녹아든전쟁이
다.

그러나 나의 의의 제기는 다음의 것이다. 전쟁을 거룩한 의무로만드는 종교 또는 (몇몇 인디언 또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서 시행되는) 의식의 시험과 모든 폭력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단죄하고 제거하는 ‘종교’ 사이에는 심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즉진리의 말씀과 전쟁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후자의 경우, ‘종교적’ 계서와 전쟁행위는 모순된다. 권위들, 지성인들 또는 전쟁의 예보로 뜨겁게 달구어진 여론이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의무는 이에 맞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 영적 메시지에 인지상기하고 전쟁을 부르는 거짓말에 대해 급진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자는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성인들과 군중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중심 메시지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인 ‘종교’가 어떻게 예수의 계시와 반대되는 이 결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전쟁을 인도할 수 있는 지 이해할 길이 없다. 나는 물론 어떤 논리들이 이 정당화에 동원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다룰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의 계시가 한 종교의 탄생에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전쟁의 전달자일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며, 종교야말로 그것에 대한 거대한 배신이다.³⁰ 그럼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다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두 가지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진리**와 **구원**의 문제다. 전술한 것과 같이 종교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종교가 배타적인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리스도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진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심이 되는 본문은 예수의 말씀이다. “나는 진리요...” 그러므로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게 된 바와는 달리, 진리라는 그마의 총합도 아니며 공의회나 교황의 결정도, 교리도 아니며, 책으로서의 성서조차도 아니다.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속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을 주는 질문이다. 그리스도교 진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에 의해서만 붙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 성서 본문이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그렇다.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전쟁 등등의 의해 부각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면서 사실상 이것들을 미리 믿지 않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그것은 진리를 행함에 관계된 것이다. (어떤 사상의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수를 따르라” 또는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 역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렵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 진동을 확인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다가도 (예를 들어 진리를 강요하는 것 등) 금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세웠던 것이다. (단순한 복음 말씀들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권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는 하느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지고한 정의를 행하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프게도 3 세기 이후의 교회들 및 그리스도교 세계는 이 본문들을 오해하였고, 그렇기에 나는 삼십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⁵⁸를 상기하지 않은 채 이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이 exousiai”로 사실상 권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적인 권력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하나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엑수시아이 exousiai 는 추상적, 영적 종교적 성격을 가진 “힘들”을 지칭한다. 바울로는 하늘에서 군림하는 이 “엑수시아이”에 맞서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천사들이 바로 엑수시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쿨만 (Cullmann)⁵⁹과 덴 (D. Dehn)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신약성서의 본문들은 땅의 정치권 군사적 권위들이 — 그것들은 악하고 악마적일 수 있는 만큼 “하늘의” 권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 — 영적인 힘들과의 관련성 안에서 세워졌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엑수시아이의 존재는 정치권력들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었으며 또한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순종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인 권위들이다. 그런데 이 권위들은 선하거나 악하고, “천사 같거나 악마적”이다. 땅의 권위들은 누구가의 손에 떨어진 존재다. (땅의 권위들은 영적인 권위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다-역자주) 그러므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들에서 바울로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권위들은 하느님의 해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은 1933년부터 히틀러의 국가를 “악마화된”, 어떤 악마적인 힘의 손에 떨어진 국가라고 서술했다.

내가 상기하는 바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단일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를 파괴하고자 했던 거대한 사조의 옆에 모호한 하나의 사조가 존재했다. (그러나 무조건 국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조는 **결코** 아니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바울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2 장 13~15 절에서 악과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권위들의 악을 폭로한다. 바울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간다! 그리스도 사상에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힘 — 하늘에서든지 육에서

두려워해야하는사람에게는두려움을, 명예로워야하는사람에게는명예를돌려 주십시오”라고말할때그것을세금에대한예수의대답에연결하는것은잘못이아 니다. 그리고여기그해석은명백하다. 여러분이빚진것은두려움도권위들및관리 들에대한명예도아니다! 두려워해야할대상은오직하느님뿐이다. 명예를돌려드 려야할대상은오직하느님뿐이다. 나는이장의마지막에부록을하나붙였는데, 거 기에는이본문에대한두개의주해가있으며그것들은꽤많은주해들중에서도가장 나온것들이다.

지금부터살펴볼것은세가지쟁점이다. 첫번째쟁점은전혀어렵지않고이미우 리가다룬것으로세금의납부에대한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이세금을거절하지 않아도된다. 그것이전부다. 두번째는더욱놀라운것이다. 그것은권위들을위한 기도다. 우리가본것처럼바울로의본문은“왕들을위해”기도하기를권고하는데, (왕이아니라왕들이라는것은『베드로의첫째편지』와같은식으로분석할수없다 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다시말해하나의권위, 하나의정부를가진모든사람을위 해기도하라는것이다. 그런데다음본문은앞서설명하였던것을더확실히해준다.

바울로는사실상다음과같이말한다. “모든사람을위해, 왕들을위해그리고존 귀한신분의사람들을위해기도하십시오.”그러므로이것은“모든사람을위해기 도하는것”의어떤특정한경우이며, 정말로그렇다! 왕을위해서조차그리고관리 들을위해서조차그렇게하라니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하느님의사랑의부름에 서비롯된전구(傳求, 중보-편집자주)로부터예외가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이는절대적으로미친짓처럼보일지도모르겠지만, 나는히틀러에맞서레지스탕 스운동에깊숙이참여하며그를죽이려고공모하기까지하면서그를위해기도하 던독일그리스도인들에대하여알고있다!⁵⁶ 우리는정적을절대적으로죽이려할 수는없다. 그러나확실한것은그들을위한기도가확실히테데움 Te Deum⁵⁷ 은아 니라는것이다! 우리의기도는권력이번영하라거나승리하라거나보전되라는기 도가아니다! 그것은그들이“돌이키도록”(그말의뜻은행동을바꾼다는것), 폭력 과폭정을그만두도록, 그리고진실해지도록기도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기도 하는것은그를위해서도그에맞서서도아니다. 그리스도신앙에서그것은그의구 원을위해기도하는것인만큼! (그것은확실히다음과는관계없다. “황제의구원을 위하여기도하십시오.”) 그리고이기도는인간적인관점에서볼때개전의여지가전 혀없을지라도드려야한다! 권위들에대한존중및그들을위한기도를말한이본 문들은거의확실히네로의첫그리스도교박해의시기또는그이후에쓰였음을잊어 서는안된다. 『로마인들에게보낸편지』 13 장에서그리스도인들에게바울로가 말했던것은아마다음과같은의미일것이다. “여러분은이박해들을당하고있고반

두번째문제는구원의문제다. 이것은그리스도교에서아주잘알려진생각인 데, 예수그리스도를믿지않는모든사람은‘잃어버린것이되었다’는것이다. (사람 들은후에이것을‘정죄되었다’고말하지만, 이는성서가말하는바는아니다.) 결국 그들을‘구원’하기위해서는우선그들에게예수그리스도안에서의복음이선포되 어야한다.... (여기서문제는심각해진다.) 맞다. 하지만그들이믿기를원하지않 는다면? 그렇다면사람들은전위적으로신앙을‘강제’해야한다는생각에이르게 된다. (그리고샤를마뉴의정복에서시작해페루의정복등에이르기까지이러한시 도들은계속되었다.) 이러한강제는위협에서사형집행에이르기까지극단적이될 수있다. 그리고이에대한거대한정당화는(종교재판에서처럼) “그들의영혼을 구원”한다는것이다. 이‘영원한지복’을위해육체를죽음에이르게한다니이무슨 말인가? 게다가이러한사형집행에는“오토다페 (autodafé, 신앙행위)³¹”라는 이름이붙기까지했던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설교, 바울로의편지들그리고예언 자들의예언에서조차그러한예시를찾아볼수없는것은자명하다. 신앙은자유로 운행위로서생겨나야하며강요에의한다면아무런의미가없다. 예수에게아버지 라불린하느님이강제에의한신앙을원한다고어떻게말할수있겠는가! 성서에충 실하고자하는그리스도인이보기에, 결국그리스도교와그리스도교세계를비판 하는이러한입장에서, 아나키스트들이역사적으로실행된폭력적인정치행위, 강 제그리고전쟁을고발할완전하고충분한이유를지녔음은명백하다.

역사적인관점에서본두번째비판은이웃사촌으로국가와의결탁에관한것이 다. 콘스탄티누스이래로(그리고약 20 년후그는결국회심했지만, 역사학자들 은그의회심이진지한것이었는지회의적이며그것이순수하게정치적인행위였던 것으로본다) 국가는‘그리스도교적’³² 국가가된다. 교회는그로인한편리함을얻 게되지만, (국가는사람들을강제하여‘그리스도교인’이되도록교회로도울것이 며, 교회에크게도움이될보조금을쏟아부울것이고, 예배장소를보장해줄것이 며, 성직자들에게특권적지위를수여하는등의혜택을줄것이다.) 그럴수록교회는제국의위치가신학에녹아들수있도록도울것이며(!) 교회가아닌국가가‘참된 교리’를결정하는일이찾아질것이고(!) 국가가공의회를소집하고주교인명을감독하는등의일이벌어질것이다. 교회는국가를떠받들어야할것이다.

왕좌와 제단의동맹은왕복고³³ 시대에나일어난일이아니라이미 5 세기에 일어났다. 이두영역을분리시키려는시도가있기는했다. 하나는현세적이며다른 하나는영적인이두영역의융합은끊임없이반복적으로시도되었고나와다른책 에서앞서말한것처럼교황은내방의주교요황제는외방의주교였다. 테데움 Te deum 을비롯한대관식기도문들은교회와정치권력을섬겨야하며민중에게권력

을 공인해주어야 하는 교회의 개념을 잘 표현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중은 사제에게 복종하고 사제는 주교에게, 그리고 주교는 나에게 복종한다.” 교회가 결정적으로 국가를 홍보해주는 대리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선언은 없었을 것이다. 왕은 하느님의 해임명되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대는 많았음에도) 왕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하느님께 불복종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화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공식 교리이자 고위성직자 및 교회 지도자들의 교리 (정교회 및 루터교회의 교리이기도 하다) 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일반성직자 및 하위성직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내전 공이 기도한 14~15 세기에는 농민 폭동의 대부분에 있어 일반 사제들은 교구민들과 함께했으며 그들 반란의 지도자 인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는 아주 오래된 양식이다. 9 세기 이래로 몇몇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했다. “모든 권력은 민중을 거쳐 하느님에게서 온다 (Omnis potestas a Deo per populum).”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에 직접 해당하는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스도 교적’ 민주주의에서 역시 이러한 동맹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회로서는 더 손해가 되는 동맹이다. 세속 민주주의에서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분리가 존재하지만, 확실히 그렇지 않다. 교회는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에 대하여 불확실한 태도를 보인다. 교회는 왕 아래에서는 친군주적이며, 나폴레옹 아래에서는 친 황제적이었으며, 공화주의자들 앞에서는 친 공화주의가 (이 경우 로마 가톨릭에서는 갈등과 주저가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적극적이었다) 되었다.

더 심한 경우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친 공산주의화되었다. 그렇다! 헝가리에서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개혁 교회들은 흐로마드카 (Josef Hromádka) 및 베렉츠키 (Bereczki) 와 손잡고 공개적으로 친 공산주의 교회화되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1941 년의 전쟁 (제 2 차 세계 대전-역자주) 시 스탈린은 정교회의 지원을 요구했고 (예를 들어 전쟁 때 돈 빌려간 사람들의 채권을 예치하는 식으로!) 교회는 매우 줄거리 그에게 봉사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교회는 체제의 훌륭한 수호자가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했고,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히틀러 체제 하에서 직접적은 아니었지만 그를 지원했다. 또한, 교황은 히틀러와 협정을 맺기까지 했다. 이 모든 예시는 정치 권력의 형태가 어떠하든 교회 권력 및 지도층이 국가의 옆에 붙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산주의 쪽에서 니카라과 Nicaragua 같은 라틴 아메리카 체제를 잇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로마 가톨릭 교회 및 ‘해방’ 신학자들 덕분에 자리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에 반하는 유일한 예는 잘 알려진 대로 폴란드의 경우이다.

교회들은 국가 형태에 적응하는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도 흡수한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

또한 이 구절들이 어떠한 텍스트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대해 살펴보자.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대단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긴 연구로 11 장에서 끝난다. 12, 13, 14 장은 새로운 주제로 시작한다. (그가운데 우리의 본문이 있다.) 그리고 이 긴 본문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로의 본질적인 일반 명령은 순응주의자가 되지 말며** 시류나 유행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의 사조에 순종하여 ‘시류’를 따르지 말고 ‘변화’되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과 사랑에서 비롯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라!) 그것은 다음의 명령 바로 뒤를 이은 또 다른 명령임이 분명하다. “정치적 권위들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모든 사랑을 위한 사랑 (로마 12:3~8), 원수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손으로 절대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로마 12:9~13)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로마 12:14~21) 이 발견된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고는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본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또 다음과 같다.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며,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라.” (로마 13:8~10) 그리고 14 장은 마치는 장으로 각종 행동 예로 들면서 사랑의 “실천”을 자세히 설명한다. (손님 접대, 심판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돕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범주이며 이 범주 안에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본문이 자리한다. 날카로우나 이상한 몇몇 주해들은 이 본문이 사실상 “가필”이며 바울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확실히 그가 쓴 것이 맞다! “...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식의 문구는 친구, 이방인, 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되며 바로 이 자리에 권위들에 대한 단락도 자리한다! 다시 말해, 너는 네 원수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여야 한다. 물론 또한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까지 하여야 한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령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권력들은 하느님의 해고 권력에까지 이른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렇다! 악하고 광기 어린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상기하자. 그 역시 하느님의 해고 권력에도 달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웠음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 구절에 대하여 뛰어난 주석가들 중 하나였던 마이요 (A. Maillot) 는 구절을 12 장의 마지막에 직접 갖다 붙인다.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위 의 권위들에 순복하십시오.” 이는 다시 말해 바울로가 국가, 황제 권력, 권위들에 적대적이었던 초기의 그리스도 교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바울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권위에 대한 교회의 적의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로는 교회에게 말한다. “권위들 역시 사람이며 [추상적인 국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자들은 그 자체로 권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로의 충고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가 “내가 되여 있는 것은 모두 내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공물을 내야 한다면 공물을,

모호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게 속한다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 장 1~2 절은 말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 도근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로의, 또는 바울로에 영감을 받은 본문들의 묶음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방금 다룬 모든 것에 대한 역사 조로 보인다.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것이다. (또는 슬프게도 너무나 이해 가능하다.) 3 세기부터 제기된 문제를 쉽게 잊어버리고는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부분의 신학자는 바울로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 장을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의미로 설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구절들의 컨텍스트 (상황-편집자주) 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조차 살펴 보지 않은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볼 줄 알았다. “모든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는 앞으로 열여섯 세기 동안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는데 있어 중심 사상이 된다. “모든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Omnis Potestas a Deo).” 때때로 대담한 신학자들은 “민중의에 해 per populum”라는 표현을 덧붙였으나 그것은 그 명령법에 붙은 사족일 뿐이었다. 모든 권력이 하느님에게서 온 이상 하느님에게 하듯 권력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군과 관련된, 때때로 난처한 예외에 빠진 상당수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기이함마저 느끼게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평화롭기만 하다면 또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그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궤변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일반 명령은 결코 될 수 없다. 종교 개혁의 시기에조차. 농민 전쟁에서 루터는 이 본문을 근거로 독일의 영주들에게 반란을 진압하라고 권고하였다. 특히 칼뱅은 왕이 교회를 공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배신이며 이 배신은 곧 순응주의적 경향 및 순종의 편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방대한 본문들로부터 사람들이 이끌어온 유일한 규칙은 “모든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Omnis potestas a Deo)”라고 하는 내 개의 단어뿐이다! 우리는 바울로의 이 본문들을 돋보기를 좀더 가까이 대고 들여다 볼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다른 모든 성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설명 전체로부터 일부의 구절들을 골라 내기를 거절하는 것,

교세에 대해 주장하는데... 그것은 한때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역자주) 이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뻗어 있었기 (또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 세계가 민족 국가들로 나뉘게 되면서 교회 역시 민족 국가의 교회들로 나뉘어졌다! 하나의 좋은 예시가 바로 잔 다르크의 경우다.³⁴ 그리고 16 세기 이래로 전쟁은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이 되었고 교회는 각국의 교회로 나뉘어 각국을 지원했다!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별것도 아니었지만 “Gott mit uns”³⁵ 라는 이상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커다란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이 성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나머지 두 국민은 각각 전쟁 중에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며 자신들이 구약의 ‘선민’이거나 『요한의 묵시록』 에 나오는 비유적인 전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한다. (정적政敵은 사탄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인 또는 교회들로부터 생겨나는 폭력의 이러한 양상들이 단박 멸망종교 재판울 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배타적으로 수호하려는 교회가 스스로 절대 무오無誤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물론 종교 재판 기구는 엄밀히 말하자면 13 세기 (1229 년) 초에 만들어져 이단 (알비파와 카타리파) 과, 14 세기 무렵에는 마법³⁶ 과 싸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형 판결, 화형은 극히 드물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한 예외가 카타리파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서 남부 (바욘느 Bayonne, 툴루즈 Toulouse, 보르도 Bordeaux) 의 보존된 종교 재판 기록들을 연구하도록 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은 고작 일년에 평균 6~7 건의 유죄 판결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종교 재판은 여론을 통제하는 장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익명 성 및 재판 절차의 비밀성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한, 집단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기구였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종교 재판정은 몇몇 왕조들에 의해 ‘집어삼켜’ 졌다. 그러므로 16 세기 이래로 종교 재판은 무서운 기구가 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베네치아 공국에서 종교 재판은 완전히 정치 권력의 수중에 있었다. 그것은 그때부터 공포를 조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종교적” 인 이유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카타리파의 경우는 이미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였었다. 카타리파는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고, 이때문에 몇몇 왕들은 그들 왕국의 인구가 줄어 들 것을 염려했다...

이러한 설명들 끝에 무엇이 있든 지 아니 키스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행위들에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는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존재했던, 용납될 수 없는 형태의 권력이었음을 나는 다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와 정치 권력-역자주) 은 혼동되어 왔고, 아니 키스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를 거부할 이유를 가졌던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더하여 민중을 착취해 서 연은 교회 및 고위 성직자들의 부유함, 그리고 19 세기 교회와 자본주의 권력의 제휴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끔찍하게 변용되어 버린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한 마르쿠스는 민

중의아편을 고발할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에의 해설교된 그리스도교는 정말로 민중의 아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의 두 가지를 덧붙이면서 말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교회들이 더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점으로부터, 정치권력과 교회들이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에 등록된 신자들의 수가 급감하는 시점으로부터 상황은 분명히 밝아지고 개선되리라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 또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 및 교회들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전술한 것과 같은 비난은 (그리고 그 외 마르크스주의자, 자유주의 사상가들 등으로부터의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상 성서 메시지와 복음을 더 잘 이해해야 하고 그들 자신과 교회의 행동을 바꾸어야 하며 성서를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역사적, 윤리적 고찰을 마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종교에 대해, 특정하게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공격하는 아나키스트들의 형이상학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에는 네 가지 결정적인 의제기가 있다. 그리고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신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슬로건이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적으로 어떠한 **주인**도 원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들은 종교적인 주인으로서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주라 불리는 권력들이 섬기는 그 하느님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람은 하느님의 해만 들어졌다 고 하는 생각 속에...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은 하느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인간 앞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세상의 주인들과 하느님을 동시에 거부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그들은 20 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그 호칭들의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계속 주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창조 의왕이며 예수는 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더는 왕도 없으며 주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수의 생각이며 하느님에 대한 **종교적인** 이미지이고 결국 하느님이 왕이자 주라는 성서 텍스트의 언급 역시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성서가 우리에게 완전한 다른 이미지의 하느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감히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여기서 이 다른 이미지를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성서의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그는 그와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의 전능함을 사실상 감추시는 하느님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모두가 가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바벨탑,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능력이시며 그것은 자의 또는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수동적이거나 복종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정치적 태도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정치적 무관심이나 아닌,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을 부정하는 태도

☒ 로마 권력을 단죄하는 태도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 정부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이 유대 전쟁 중에 대학살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스도교를 제거한 기원후 70 년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대감으로 로마로 집중되었음은 자명하다!

5. 바울로

결국 우리는 바울로의 본문들에도 달한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우선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잘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다음의 본문들을 인용하려고 한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느님께서 세우 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무를 다 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서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로마 13:1~7)

그리고 『디도에 보내 편지』 3 장 1 절,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이것들은 성서 전체를 통하여 순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들이다. 이 두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주된 사조와 대비되는 어떤 ‘역대사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둘째 편지』 2 장 10 절,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가 거기 있다. 그리고 『유다의 편지』에는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러나 이 본문들의 성격은

는 모호한 직함을 받는다. 조국의 아버지, 시민의 수호자 servator civium, 그러나 그는 또한 “제 1 의원”이기도 했다. 그것은 원로원의 첫 번째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체제 내에서 공화주의 제도를 세웠다. 그의 계승자들은 그만큼 세심하지 않았고 결국 조금씩 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가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황제라는 칭호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한 칭호를 수여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기자는 그 서신에서 로마의 황제를 겨냥하여 말한 것이 결코 가아니었다.

자, 여기서 나는 매우 아슬아슬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따르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가정이다. 로마에는 정당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1세기 무렵에는 지배적인 하나의 철학을 기초로 한 단일한 하나의 정당이 발전한다. 이 철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제국들은 하나의 순환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정치적 힘이 태어나서 자라고 전성기에 도달하며, 그 순간부터는 자라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쇠퇴하게 된다. 그것은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바대로 세상의 모든 제국의 운명이 그러하다면 로마도 그러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1세기 로마의 작가들은 스페인에서 페르시아, 스코틀랜드에서 사하라 그리고 남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던 로마가 힘의 정점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은 자랄 수 없어 결국 쇠퇴하기 시작하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베르길리우스 또는 티투스 리비우스가 증언하는 것처럼 영광과 열정의 시대 이후의 철학자들과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생각이었으며 그렇기에 이 시대를 어두운 비관주의의 시기라고 부른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 역시 당연히 그랬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의 생각이 덧붙여졌다. 대제국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이 붕괴할 때마다 그것을 대체할 새 제국이 나타난다. 당시 로마가 멸망시키지 못한 유일한 적수는 새 영토를 정복하며 끊임없이 권력을 확장하고 있던 파르티아였다. 그리고 지성인들 및 ‘지도층’ 인사들이 이루어진 한 정당이 나타나 매우 진지하게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대체하리라 예측하였다. 그들 중에는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을 전파하고 경우에 따라 파르티아를 지지할 수도 있는 하나의 정당을 세우고자 하던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런데 파르티아인들은 사실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왕’을 위한 기도들에서 왕의 의미하는 것은 바로 파르티아의 왕이며, 당시 그것은 금지된 것이었다! 그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물론 어떤 역사가들은 이러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의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황제를 칭하며 그를 기리거나 로마의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두 번에 걸쳐 왕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어쩌서 파르티아의 왕이라고 적시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면 경우에도 이 본문은 완전히 반역적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다른 권력을 지지했던 만큼 그것은 당시 로마의 정치권력만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국가 자체를 겨냥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배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일뿐 아니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히브리 성서에도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그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을 무섭게 폭발시킬 것으로서가 아닌, 단지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권능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말씀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시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소통하시는 하느님”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폭력적인 힘으로 투쟁하는 신들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포함하여) 을 담은 종교적인 우주관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성서의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 두 번째 이야기에서 따르며 — 인간의 성격을 형성한 것 역시 말씀이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첫 역할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말이다.) 이 다른 이미지를 가진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묘사는 광야의 엘리야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엘리야가 고독 속에서 비탄에 잠긴 지 사십 일 만에 무서운 불, 바람, 지진이 일어났고 성서 본문에 따르면 그때마다 하느님은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마침내 한 작은 소리 [슈라키 (Chouraki)]³⁷는 “벽력 같은 고요”라고 번역했다] 가 있었으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곁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그 소리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언서의 텍스트에서 하느님께서 그 비탄에 빠진 백성에게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삭이시며 말씀하셨는 지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내 백성이여, 너를 나에게 돌아서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한 이 하느님이 권능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조차도 한 위대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이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 산은 천둥, 번개 등으로 뒤덮여 있고, 백성은 두려움에 떠난다. 그럼에도 모세가 산 위에 오르자 출애굽기 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훼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하느님의 권능이 무엇이건 첫 번째로 지나가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모습이다. 하느님의 모습은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자기를 제한하시는” 모습이다. 절대왕정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16~17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하느님을 모방하여 왕들의 전능함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들은 정확히 틀렸다. 그럼에도 전능한 국가 앞에서 (또 그에 맞서) 하느님은 그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며 모든 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때때로 유용하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가 하느님 인지는 너를 죽이려는 자객 앞에서 알게 될 것이다!” 각설하고, 성서의 하느님의 참된 얼굴을 사랑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사랑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는 식의 말에까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아나키스트들의 하느님 개념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아주 유명한 두 딜레마 중 하나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섭리”의 하느님이라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 철학과 고전 신학자들로부터 비롯된 하느님의 이미지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속성’의 총합을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에게 ‘부여했음’을 알고 있다.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한, 무감정한, 불변의, 영원한 등. 나는 성서의 직접적인 언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원함의 의미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느님) 성서의 이해로부터 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에 서 비롯된 하느님을 대표하는 이미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단언을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인지할 수 없으며 그가 누구인지 상상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다. 진지했던 신학자들만이 부정·반박의 신학이라 불리는 것을 실천했는데 이는 “우리는 하느님을 인지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가 무엇이 아닌지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돈은 신도나 무도 또는 섀도 태양도 아니다.” 우리는 긍정의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정의는 성서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긍정의 선언이나 사랑은 어떤 주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자기정의 (自己定義, 출애굽기 3, 14) 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하지만 히브리 단어들의 다중 함의를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나는 **존재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존재할 나다”, “나는 존재할 나일 것이다” 등등.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든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카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인지할 수 없는 자**로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에게 부여한 모든 속성은 상상 혹은 인간 이성 산물이다. 그리고 사신死神 신학자들이 “신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이미지를 파괴한 것은 커다란 공로였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19 세기 위대한 아나키스트들과 니체의 공격은 그들 시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신학자라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과학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또한 그리스도교 철학자였던 리코어 (Paul Ricœur) 는 “임시변통의 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이라 말한다는 뜻) 을 끊임없이 고발하였다. 그것이 설명하기 편한 임시변통이든 세상의 기원 등에 대한 이해하기 편리한 가정이든 사실상 하느님에 대한 오류들은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성서적이며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진실, 즉 ‘하느님’은 **아무 쓸 데 없다**는 명제에도 달하게 된다!³⁸

그렇다면 이 ‘하느님’을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가? 음, 그러나 사람들은 그 편리하고 “쓸데가 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공리주의 및 근대성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을 이용해 온 아주 무거운 죄질의 오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연히 반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당한 학살과 관련되어 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목이 잘리는 형을 받았다고 말한다. (묵시록 20:4)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서커스 놀이의 문제도 사자에게 던져지는 등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권력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도 죽인다. 이러한 경험 이 정치 권력을 비난하는 확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초기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한 다른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국가에 적대적이었다.

4. 한영향: 베드로의 편지

바울로의 본문으로 향하기에 앞서, 후기 서신 중 하나인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짧은 구절 하나 (베드로 1 2:13~17) 를 살펴보고 넘어가자. “황제는 주권자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이 본문이 주석자들에게 조금의 어려움도 주지 않았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정말로 단순한 본문이었다! 그들에게 황제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 권위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매우 드문 본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성서의 관련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이 본문에 연결하는 것은 나의 관심을 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당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다. 첫 번째로 결코 제 1 시민 princeps (성서가 기록된 시대 전체를 통틀어 사람들은 황제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항상 제 1 시민이었으며 그래서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제 1 시민의 시대 principat 라고 불린다) 은 바실레우스 basileus, 즉 황제라는 칭호를 가진 적이 없다. 그것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칭호였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그러한 고발에 따른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는 군주정을 세우려고 시도하였고, 그것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 소란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러한 빌미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영리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일련의 **공화주의적** 칭호들을 계승하였고 받아들였다. 그는 집정관, 호민관, 최고 사령관이었다. (임페라토르 imperator⁵⁵ 는 황제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신관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로마 민주정의 전통적인 칭호였다! 그는 심지어 내전의 결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직무 초차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영구 집정관제” 및 독재관이라는 칭호의 폐지가 그것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자신을 제 1 시민, 즉 첫 번째 시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오직 인민이 주권자이며 인민이 그 자신의 “집정관”을 제 1 시민으로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는 민주적 투표 통하 여 원로원에 충분한 권력을 부여하게 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법률적으로는 별대용이 없

가없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경찰**과 연관된 **선전**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사람들을 국가에 복종하고 국가를 숭배하도록 이끄는 전쟁을 주도하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표”를 준다!

결국, 첫 번째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 묘사가 정확하다고 믿는다. 로마의 주요한 선전 수단 중 하나가 제단 및 신전 등을 통해 로마 황제에 배를 세우는 것이었음과 그 시대 유다의 왕들이 완벽하게 그에 복종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본문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 말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오리엔트 지역의 지방 세력들은 로마에 배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성 또는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한 종류로 첫 번째 짐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을 쓴 유대인들에게 국가 및 그 선전은 **악**에서 오는 두 힘이 있음을 상기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마지막 본문은 유명한 18 장으로 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이 본문이 로마를 겨냥한 것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로마는 명백히 최고 정치 권력과 동일시된다. 모든 민족은 그녀의 광적인 악덕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악에 의한 광기와 폭력의 첫 번째 묘사는 흥미롭다.) 땅 위의 모든 왕은 그녀와 간음한다. (땅의 왕들은 그녀와 잤으므로 정치 적 힘의 꼭대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된다. (그주해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부를 구체화하는 수단이며 그 고객들을 부유하게 한다. 오늘날 무기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임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정치 권력과 금권의 결합이다.) 그녀가 무너질 때 “땅의 모든 왕은 슬퍼하며 절망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호느길 것이다...”

그 후에 따르는 것은 로마에 물건을 사고 판 모든 자의 긴 목록이지만 그 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그 목록의 가장 아래에 나타난다. 대 바빌론은 “사람의 몸과 목숨”을 사고 팔았다. 그것이 단지 몸뿐이었다면 그것은 노예 매매로 생각하면 그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의 단어가 등장한다. 목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예의 매매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권력임을 뜻한다. 그리고 약속된 것은 이 정치적 지배의 순수하고 단순한 멸망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뿐 아니라 모든 권력과 모든 지배권은 특히 하느님의 원수로 묘사된다. 하느님은 **큰 탕녀**로 불리는 이 정치적 힘을 심판한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선도 기대할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의 파괴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예수의 반란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상이 진화함에 따라 정치 권력에 맞서 강해져 왔다. 이 본문을 단지 로마에 국한하기를 원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사고일 뿐이다. 그들이 강해진 것은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였으며, 큰 탕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던 만큼 그리고 “큰 도시에서 발견된 것은 예언자들, 성도들 그리고 **땅에서 목이 잘린 모든 사람**”이었던 만큼 이 본문은 그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는 그 개념 — “섭리의 하느님” — 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오직 어떤 힘에 의한 것이 한창조 — 그리스도 교적이라 할 수 없다 — 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명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서에 이러한 섭리의 하느님은 없으며, 그러한 축복, 그러한 저주, 그러한 부유, 그러한 행복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하느님은 없다!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하는 거대한 컴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니다. 세상에는 그 자신이 시작하신 발걸음에 인간을 동행시키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느님은 때때로 개입하실 수 있지만, 결코 어떤 법률에 따라서나 독재적인 자의에 의하지 않는다! 섭리의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면, 하느님의 선물로서 어떤 행복이, 하느님의 경고 또는 처벌로서의 어떤 불행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것이 축복인지 처벌인지 객관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신앙 안에서 어떤이에게 하는 말처럼 나 역시 단어들의 미 이상을 들을 수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은 착각일까? 이러한 생각을 단지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 년기의 경험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온 거짓된 하느님의 이미지들을 쫓아 내기를 계속하자. 섭리의 하느님은 대중을 위해 세워진 개념이었다. 지성인에게 있어 하느님은 (인과론적 사고에 의하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일 것이다. 물론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만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본질적 이유를 하나 대자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으로서의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한 시스템에 속하였지만, 성서가 말하는 하느님은 변하시고 흐르고 자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는 자유로운 하느님이시며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그는 무엇보다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굳이 모든 원인들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설명에도 달한다. 창세기는 6 일간의 창조를 묘사한다. (물론 24 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6 일째 되는 날, 그의 창조를 끝마친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리고 7 일째 되는 날, 그는 쉬셨다. 그러나 모든 인간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가능한 대답은 하나다. 이 일곱 번째 ‘날’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느님은 그의 휴식으로 들어가시고, 사람은 그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조직하고 기능하는 그 자신의 법칙들을 가진다. 인간은 그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 ‘불순종’하리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 그에 게서 분리되리라는 것은) 이상황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행동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그의 휴식에서 나오시지 않는다... 세상의 구성은 그대로 남는다. 하느님은 그의 휴식에 머무르신다. 인간은 그 자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전술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를 계속 하시며 또한 그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다리신다. 그는 말씀이시며, 당신의 피조물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때로 그것을 위해 하느님은 그의 휴식에서 나오신다. 성서 본문들은 분명하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휴식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결국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요한의 묵시록』에서 위대한 약속 및 기쁨은 바로 이 휴식을 되찾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의 휴식을 되찾으실 것이며 인간은 (죽음을 뜻하는 “휴식”과는 아무 관계 없는) 하느님의 휴식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때때로 하느님은 그 자신의 휴식에서 나오신다... 상황이 인간에게 절망적일 때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시도하시지만,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 참여해야 하는 것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예시가 있다. 이 경우 예시 하느님은 그의 휴식에서 나오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서로에게 향하여 하느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그가 개입하시게끔 하기 때문이며,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갑작스럽고 불만하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악한 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질서를 구축하신다. (그러나 이 역시 비밀스럽게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느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하느님의 ‘역사’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중심 되는 생각에도 달하게 된다. 성서의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우주적인 사령관이 아니라 해방자 이시다.³⁹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은 창세기가 성서의 첫 번째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다이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첫 번째 책으로, 기초가 되는 책으로 여겨졌던 책은 출애굽기였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우주의 창조자이기에 전에 그들의 **해방자**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다음의 텍스트는 의미심장하다. “나는 너희를 노예로 삼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데 이집트는 미트라임 (“이집트”)의 히브리어-역자주) 이라고 불렸고 그 뜻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다. “이중의 곤란.” 그리고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이 단어를 해석했다. “삶의 곤란과 죽음의 곤란.” 성서의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삶과 죽음의 곤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사실 그가 ‘개입’ 하실 때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 마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때때로 그것은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하느님이 사명을 맡기신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매우 자주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거절당하는 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하느님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다. 알폰스 마이요 (Alphonse Maillot)⁴⁰는 이 성서의 하느님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유머가 출중하신 분인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왜 자유 (해방-역자주) 인가?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인간은 이 사랑의 응답자라고 한다면 설명은 간단하다! 사랑은 의무도 아니고 강요할 수도 명령할 수도 없다... 사랑은 당연히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하느

그러므로 정치 및 종교 권위에 맞선 예수와 관련된 본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협조’, 무관심 때로는 고발의 반어법과 경멸을 발견한다! 그는 게릴라가 아닌, ‘본질적인’ 반체제 인사였다!

3. 『요한의 묵시록』

그러므로 처음 두 세대가 권력에 대해 가졌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규정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요한의 묵시록』⁵⁴은 가장 폭력적인 책으로, 예수의 말씀들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나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기원 후 100 년에서 130 년 사이에 기록됨) 그것이 직접적으로 로마를 겨냥한 본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대에서의 로마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책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의 권능에 맞서는 땅의 모든 권능 및 권력들이 등장한다. (하느님의 권능과 땅의 권력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거나 유일하신 전능자 하느님이 마치 땅의 군주처럼 하늘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오류는 그만큼 땅에서 전능한 왕을 그려낸다는 것이다. 『요한의 묵시록』이 말하는 바는 정확히 그 반대다!)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내가 붙잡는 것은 단지 두 개의 거대한 이미지다. 첫 번째는 “두 짐승”으로 마지막 예언자들 (구약 성서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예를 들면 다니엘-역자주) 의 이미지에서 온 것이며, 사실상 그들 시대의 정치 권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바다를 통해 군대를 보내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는 용에게서 받은 “왕좌”에 앉았다. (제 12~13 장) (용은 반역 하느님 Anti-Dieu 을 대표한다.) 그는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했다.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한다. 그들은 선언한다.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짐승에게는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땅의 모든 거주자가 그를 숭배한다. 권위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숭배를 요구하는 정치 권력을 묘사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과 “디아볼로스”의 관계 역시 그와 같다.) 묵시록의 마지막에는 그 짐승이 바로 국가임을 확증해주는 본문이 등장한다. 큰 바빌론 (로마) 이 멸망하는 것이다. (제 18 장) 그리고는 전투가 일어나는데 짐승은 하느님과 전쟁을 치르고자 땅의 모든 왕을 모으지만 패퇴하고 단죄를 받는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의 운명 역시 그러하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나의 해석은 전문가들에게는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대로 밀고 나가 고자한다. 이 짐승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땅의 모든 거주자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 “그는 땅의 거주자들을 속인다.” “그는 그들에게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는 짐승의 이미지에 생기를 주어 그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는 작은 자든 큰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민이든 노예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른 손이나 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

본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형성했다고 인정한다면 어찌하여 빌라도가 악의 영덕분에 권력을 가졌다고 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본문은 이처럼 모호하게 기록되었을까? 물론 나는 본문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복음 (『요한의복음서』-역자주) 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로 여겨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쓰였으며 그렇기에 어떤 본문들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예수는 때때로 도발을 서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은 그에게 묻는다. “너는 메시아인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예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네 말이다.” 그러나 그는 덧붙인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⁵³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신학적 가르침에 대한 조롱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 자신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성서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는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 라고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한 적이 없음을 언급해야 했다. 예수는 항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 참사람!) 이라고 지칭했다. 그가 다음처럼 말했을 때 이미 대제사장을 조롱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 때로부터! (『마르코의복음서』 에도 이와 관련된 같은 대답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상 예수가 한 말로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결국 『요한의복음서』 에 등장한 것은 그와 같은 도발로서 빌라도를 향한 것이다. (요한 18:34~38) 늘 그렇듯 예수는 이 본문에서 빌라도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는 대답한다. “그것은 네 말이나? 아니면 나에게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나?”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유대의 권위자들이 예수를 넘겨주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예수는 다음의 모호한 대답을 한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국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일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여 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빌라도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정한다. “아무튼 네가 왕이나?” (그것은 그에게 예수를 유죄 판결할 정당 근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그에게 대답한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질문을 한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자 예수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숨겨진 조롱, 도전,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발이다. 예수는 그러니까 아예 이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빌라도에게 말한 것이다.

님이 자유롭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가 기다리시며, 인간이 그에게 응답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도록 위협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개의 반론이 뒤따른다. 하느님은 유대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수백 가지 계명을 내리신 분이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가 사랑에 강요하지 않는 하느님인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인간이 법 조항에 상응하는 이 ‘계명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들이 이 의무와 강요들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계명들은 하느님이 삶과 죽음 사이에 경계지우신 한 것이다. “네가 살인하지 않는다면 살인당하지 않을 가장 큰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인한다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 죽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사적인 살인 이든 전쟁 이든 다 같은 것이다!) 칼로 살인하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다. 이는 그 모든 계명으로 보아 참이다. “네가 그 안에 머문다면 너는 보호 받는다. 네가 그것을 어긴다면 위험과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선 것과 생명, 악과 죽음을 놓는다. 너는 살려 면신을 택하라. (나는 너에게 권고하여 선을 선택하도록 돕기까지 하는 하느님이다.)” 이 계명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면은 그것이 명령이면서도 또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너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다음의 뜻을 내포한다. 살인하면 안 되며 거기에서 더하여 “네가 살인함이 불가능해질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이해방의 행동은 그리스도 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취다. 이 자유에 대해 가장 힘있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로이며, 이 주제에 대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는 다음과 같이 자유에 대해 말했다. “너희가 해방된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마라.”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결국, 야고보는 ‘하느님의 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부른다! 음식 및 생활 방식 등에 관련된 ‘규정’들을 거절한 바울로의 놀라운 이야기 — 바울로는 지혜롭게 보이는 이 규정들이 하느님의 명령들이 아니며, 단순히 인간의 계율일 뿐이라고 말한다! — 를 비롯하여 우리가 성서의 수많은 본문을 읽을 때 교회들이 얼마나 자주 인간을 어린 아이 취급하며 도덕률에 종속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해 왔는 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해방되었고 그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럼에도 하느님은 행동하신다! 그것이 개입 이든 명령 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다. 이것은 다음처럼 이해된다. 이는 점에 대한 첫 번째의 견은 그것이 항상 한 인간에게 전달된 계명들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법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러한 일반화의 권리가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어떤 가르침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는 일반화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부에 대한 경계로 우리에게

게주어진말씀이다. 또한, 그리스도인각각은그자신에게주어진말씀으로이것을 새롭게받아들여야한다. 이질문에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인간과하느님사이의변증법적관계속에있다는것이다. 인간은그자신의방식대로행동할자유와책임이지니며, 하느님또한그상황안에서행동하신다. 이두행동은서로결합할수도있고, 부딪힐수도있다. 이모든경우에인간은완전히수동적일수는없고, 하느님역시모든것을홀로하시지는않는다. 그는권고하시고명하시지만, 인간이그에반하여행동하는것을막지않으신다. 그리고경우에따라 (이러한상황은매우놀랍다!) 하느님은사람이그가원하지않았던어떤것을했을때그것을승인하실수도있다. (다음읍기의놀라운구절을보라. “하느님께서잘못하실지라도나에게그이유를알려주시면좋겠다.”) 이는다시말해서성서의하느님이대화할수없고어떤프로그램에따라서만기능하는어떤기계나거대한컴퓨터가아니며, 인간역시만드신분의결정에따라움직이는단순한로봇이아니라는뜻이다.

그리고하느님에대한아나키스트들의최근의 (내생각에는) 커다란이의제기가우리에게놓여있다. 그것은아주유명한딜레마다. 하느님이전능하신데세상의모든악에대해서아무일도하지않으니그는전능하지않은것같다. (물론일어나는모든일이하느님께서‘하시’일이아닐지라도!) 또는하느님이선택지라도전능하지는않은것은악이일어나는것을막지못해서라는것이다. 내생각에는지금까지우리가한이야기가대답을쉽게해줄것이라본다. 우선분명히바꿔둘것은, 악은어떤초월적인존재인사탄, 악마등의산물이아니라는것이다. 이모든것은실재하는것이아니라히브리및헬라문화권의대표적인신화이며인물에대한고유명사가아니라 **보통명사**다! 유명한악마인메피스토펠레스등이이에해당하는데, 이들은전설일뿐성서에따른어떤것이아니다.

디아볼로스 diabolos 는“분열시키는자”라는뜻이다. 그러므로인간의분열을책동하는모든것이‘악마’다. (이것의반대는사랑이다!) 사탄은모함하는자이므로인간이서로모함하는것을책동하는모든것이바로사탄을비롯한그와비슷한존재들이다. 인간이타인에대해또한자신에대해악을행한다는의미에서악은인간에게서비롯하며, 인간은이웃에게, 또한자연등등에악을행한다. 선한신과악한신이따로있는것이아니다. 그것은어떤인격적인존재가아니라행동의힘이다. (악마는잘못된지성인의질문들및세상을허무로이끄는큰뱀인권력같은것을대표한다.) 성서에의하면그것은오직인간으로부터비롯한다. 우리가알다시피인간이하느님을사랑하는삶으로부름받았다면하느님은끊임없이개입해그를해방하시고, 해방된자유로운인간은그가결정한것을행할수있다. 인간은악을행할수도있고하느님이원하시는것과반대로행동할수도있다. 하느님이선을바라시지

그러나다른관점에서보자면, 예수는때로공격적이며멀시또는조소하는태도를보인다. 산헤드린과빌라도앞에서의이야기를되풀이하자면, 그들은예수에게 묻는다. “네가유다인의왕인가?”그리고세이야기중둘은다음의아이러니한대답을보고한다. “그것은네말이다.”(나는그주제에대해아무말도하지않지만, 너는네가원하는대로그렇게생각할수있다!)

그의태도역시대제사장들같은권위에대한하나의고발이다. “칼과못등이를 들고나를잡으러왔으니내가강도란말이나? 내가매일너희와함께성전에있을때에는잡지않더니이제는너희의때가되었고암흑이판을치는때가왔구나.”(루가 22:52~53) 다른말로하자면, 그는짐짓대제사장들을악한권위라고고발한다. 거의같은상황이 『요한의복음서』 에도나타난다.(요한 18:20~21) 대답은다르지만, 반은조소하며반은고발하는내용이다. 대제사장안나스가예수의“가르침”에 대해질문했을때예수는대답한다. “나는이미모든사람에게공개적으로말하였다! 왜그것을나에게묻느냐? 내말을들은사람들에게묻거라. 그들은내가말한것을알것이다!”그리고군병중하나가그불손한대답에격분하여뺨을때리자예수는그에게대답한다. “내가잘못말하였다면입중하여보아라. 그리고내가제대로말하였다면여찌나를때리느냐?”

마지막으로, 이러한권위의부정에아직모호한태도를보이는 『요한의복음서』 의본문이있다. 빌라도는예수에게말한다. “너는나와말하기를거절하는구나. 내가너를살려보낼수도있고십자가에못박을수도있는권력을가지고있음을 모르느냐?”그러자예수가그에게대답한다. “위에서주지않았더라면너는나에대해조금의권력도행사할수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나를너에게넘겨준자들의죄는너보다더크다.”이유명한“위에서주지않았더라면”이라는구절은확실히다양하게해석된다. 모든정치권력이하느님에게서왔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확신한다. 예수는빌라도가하느님으로부터권력을받았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라고! 그러나나는그대답후반부의의미에대한설명에주목한다! 예수를넘겨받은권력이하느님에게서온것이라면왜그를넘겨준사람의죄가더크다는것인가! 두번째해석은순수하게역사적인것이다. 예수는빌라도에게말한다. “너의권력은바로황제가준것이다...”나는이해석이무슨말인지잘모르겠다. 예수가빌라도는황제에게속할뿐이라고선언하는것은무슨의미인가? 그들의대화와의해석이가지는 관련성은어떤것인가?

결국내가제기하는 (거의지지받지 못하는) 해석은, 예수는빌라도에게다음과같이말하였다는것이다. “나에대한너의권력은악의영으로부터온것이다.”그것은우선우리가다루어온“유혹들”이라는주제와들어맞는다. (세상모든왕국의권력은악마에속한것이다.) 그다음으로, 조금전에다루었던구절에관련하여, 예수는대제사장들에게이재판은암흑에속한일이라고대답한다. 결국그대답의후반부는설명한다. 예수는빌라도에게말한다. “너는악의영으로부터너의권력을받았으나나를너에게넘겨주는자는너보다더죄가크다!”참으로그렇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재판에서예수의태도에대한구전및정확한그의말씀들을담은) 이

적질서가아니었으며, 오백년간제국이보유했던질서는정교하고사람들을만족하게할만한법의기준에의해언어진안정및행정의숨씨에서비롯된것이였다! 예수의재판이야기가의미하는것을파악하려면이러한사실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사람들이그처럼자랑스러워했고가장정의로운해법을제공했던그법은결국누구에게적용되었는가? 그어떤정당한동기도없이무죄한사람을군중이재판하게하고사형선고를받게했을때말이다. (빌라도는그것을알고있었다!) 이것이그뛰어난사법체제로부터사람들이기대하던것이였는가! 그러므로예수가재판에순종했다는사실은결코정부권위의정당성을확인하는근거가될수없으며, 그것은오히려정의에이르고자하던것의근본적인불의함을폭로한다! 그리고우리가더욱공감하게되는것은다음의선언에이르러서다. “예수의재판에서명예를회복하는사람들은로마가사형선고를내리고십자가에못박은모든사람이다!” 그러므로우리는다시한번모든권력은불의하다는성서기자의이러한확신과마주친다. 우리는거기서전도자의메아리를재발견한다. “판결을내리는자리에악이다스린다.”⁵²

그리고이제이재판에서의예수의말씀과태도를관찰하자. 물론네복음서사이에는차이점들이있으며, 말씀이완전히같은것은아닐뿐 아니라같은사람들을대상으로하고있지도않다. (예를들어산헤드린이라고도하고헤로데라고도하고가야파라고도한다...) 그러나어쨌든전체적으로기록되어있는것은아주분명한하나의태도다. 그것은침묵, 권위자들에의하고발또는결연한도발로표현되었다. 예수는이권위들앞에서대화를시도하지도, 결백을주장하지도, 어떤권력의참됨을확인하지도않았다. 그것이바로충격적이다. 나는이세면면의예수의태도를다시다루려고한다.

침묵, 대제사장등및모든산헤드린앞에서: 모든이야기는사람들이예수에게불리한증인들을찾았지만찾지못했고결국두사람이그가성전을무너뜨리려했다고(마태오) 증언하였다는사실에서일치한다. 그리고예수는아무대답도하지않는다. 권위자들은놀랐으며그에게자신을변호하라고요구했지만, 그는침묵을지킬뿐이다. 헤로데왕앞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것은루가만전하는사건이다) 헤로데는그와말해보고싶어그를초출한다! 그러나예수는어떤질문에도답하지않는다. 결국그곳은예수에게대해적의가없는상태였던빌라도가그에게유죄판결을내릴수도있었던자리였던만큼 『마태오의복음서』와 『마르코의복음서』는로마관리빌라도앞에서의다시한번놀랍다고박에할수없는예수의이러한태도에대해역설한다. 예수를빌라도앞에고발하는사람들은대제사장들과장로들이다. “대제사장들이많은죄목으로그를고발했다.” 그리고빌라도는간청한다. “너는할말이하나도없느냐?” 그러나예수는사실상아무대답도하지않는다. “빌라도를더놀라게한것”이다. 그러므로전체적으로그것은모든종교및정치권위를거절하고업신여긴태도였다. 예수는이권위들이어차피정의롭지않으므로자신을변호하는것은절대적으로아무소용이없다고생각하는것처럼보인다.

만, 그것을행하지않는인간을내버려두시는것은전능하신하느님이자동으로인간에게‘선을행하게’만드신다면인간의인생은아무의미도없는것이되기때문이다. 인간은하느님손안에있는로봇이나하느님이가지고노시는장난감이되고말것이다. (하지만왜?) 그렇다면인간은아무것에도책임질필요가없으므로그가선을행하든악을행하든중요하지않게된다! 의심의여지없이‘일들’은완전무결하게기능할 것이며, 전쟁도살인도독재도그외의것들도이러한컴퓨터사이에서는일어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자연재해는? 대홍수들은? 불가지不可知의인간에게이러한일들이받아들이기어렵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여기성서의설명이다. 모든피조세계가전체로서만들어진이상, 그모든구성요소가간밀하게연결된한, (오늘날첨단의물리학자들일수록이러한사실을인정한다!) 이피조세계안에서인간이피조물들의‘왕좌’에있으면서피조세계에대한책임을지는한, (앞서말한대로인간이하느님을“피조세계의사랑이라고까지높이는”한) 인간이하느님으로부터자신을분리하는순간부터모든피조세계는인간과함께하느님으로부터분리된다. 이피조세계의주요한부분이자물적으로자신의의지에따라행하기로했기에아무것도있는그대로남아있는것이없다. 모든것이충분히나빠진것이다. 그때로부터피조세계는우주와물질을구성하는법칙에따르게되고, 그몸을유지보존하면서무無로돌아가지는않지만, 인생처럼애로와사고를피할수없게된다. 그리고인간이존재자체이신분에게서분리되었으므로피조세계는다른존재가될수없다.

다른한편, 최근의견해는홍수같은재해들은인간을위한것또는인간과관계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눈사태, 지진, 홍수등은그자체로는불행도아니고자연에특정한피해를주는것도아니다! 다른관점에서보자면이것들은우리가발견한물리학과화학의‘법칙들’에따라설명되는것들이다. 인간이거기에있고자연의변화그결과를겪는다면그것이끔찍하다고하겠지만, 그것은인간에게관계될때에만대홍수니하는이름으로불릴뿐이다. 그러나사실상하느님은항상개입하시는분은아니라는것을우리는이미이야기했다. 하느님은하느님에게서스스로떨어져나간인간이거기있다고해서자연의법칙을맘대로변경하시지는않으신다! 그가변경하시는것은매우예외적인경우이며인간들은그것을‘기적’이라고부르지만, 기적의 **물질적인** 현상은성서의관점에서보면그다지중요한것이아니고다만인간이거기있다는 **의미**에서그렇다는것이다. 특히그것이하느님과의관계가회복되는것, 하느님께서그를보호하시는것과치료하시는것등을선포하신다는표시라는의미일때그렇다.

하지만 **어쨌거나** 기적은경이가아니라지극히드물고예외적인사건일뿐이다. 그러므로나는어린예수의기적들 (예수께서흙을빚어새를만드시고흙을불어넣으시니날아갔다는것), 후에전승된예수의기적이야기들, 그리고그가군중을“놀라게”하셨다는이야기들 (예수께서는사람들을놀라게하려고나자신이하느님의아들임을 **알리려고** 기적을행하신적이결코없으며오히려그것을분명하게거절하

했다.) 또한 성서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정녀 또는 천사 등의) 유명한 발현 이야기들을 완전히 거절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 나를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되었거나 신화적인 근거가 아닌 이성을 통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한 것일 뿐이다! 1947년부터 197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I.E.P.⁴¹에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⁴²에 대해 가르치던 때, 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입장에서서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반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려고 할 때 감정에 의해서, 모호한 이상에 의해서 또는 중용의 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하고자 한다!

제 2 장 아나키즘의 근거로서의 성서

그러므로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국가 또는 권력을 옹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나키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는 안-아르케 an-arkhé, 즉 권력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아나키즘으로서 흔히 가지는 오해인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질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말 아나키상태로군.” 그리고 이는 서구인들이 사회의 질서가 경찰, 군대, 선전 도구 등을 가진 강한 중앙 권력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이 권력에 대해 말할 때는 무질서라는 주제역시 함께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에 이은 무질서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농민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교를 들은 뒤 행동했으며! 곧바로 그것을 표명하기를 원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즉시 영주들에게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칼뱅은 폭정 조차도 사회의 무질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프로테스탄트인 만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성서에 충실한 선생들이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 조차도 왕이나 영주 등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려 의식이 흐려졌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그들은 그러한 편견 없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모든 체제 아래서 국가가 개인을 짓누르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배혜 못 (욕기에 등장하는 괴물-역자주) 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서를 다르게 읽을 수 있다. 물론 성서에서도 우리는 ‘권위’를 정당화하는 텍스트들을 볼

때그가 다른 말로 돌아가 보자. 베드로는 그 주인을 방어하고자 병사 중 하나에 해를 가했다. 예수는 그에게 멈추라 고 말하고 나서 폭력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유명한 말을 한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칼은 풀무로부터 또 다른 칼이 나오게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같은 의미의 구절이 『요한의 묵시록』 데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묵시록⁵⁰ 그것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기에 중요하다. (또한 새롭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일반적인 정치 권력과 다양한 형태의 힘을 대표하며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선전 Propagande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나는 밝히 바 있다.⁵¹ 그러므로 전자는 폭력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어떠한 ‘인간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 국가다! 그리고 본문의 기자는 폭력적인 국가의 면전에서 선언한다.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그것은 하나의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가가 칼을 사용하는 이상, 칼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지난 수 세기의 역사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가 국가와 싸우려고 칼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칼로 죽을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비폭력의 의미에 대하여 안내 받는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할 마지막 쟁점은 바로 재판이다.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다. 그런데 예수의 태도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 앞서 미리 물을 것이 있다. 카를 바르트를 비롯한 신학자 대부분은, 예수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만큼, 그것은 그가 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였음을 입증하며 결국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초가 아니냐고 말한다. 내가 이러한 해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이 구절을 정확히 반대로 읽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로마의 권위를 대표하여 로마 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어떤 문명도 그렇게 정교하고 구체적이며 재판과 토론과 변론에서 그렇게 정의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나는 스무 해 동안 로마 법에 대하여 가르쳤으며, “무엇이 정의인지” 말한 법학자들의 모든 숨쉬와 정교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Jus est ars boni et aequi”, 법은 선과 형평의 예술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상 ‘정의’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 및 책임자 등이 있음을 나는 보증할 수 있다. 우선 로마인들은 흔히 묘사하는 것처럼 잔인한 전사나 정복자가 아닌, 로마 법이라고 하는 걸작이 만들어 낸 창조물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한다. 엄밀히 말해, 로마의 군대는 대군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많아야 120 군단 정도였으며 제국의 국경선 전체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를 내부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제국의 질서는 군사

⁵⁰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성서와 구관 사이에 약간의 인명人名 및 전설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사점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위하여나와너의뿔으로내어라!”물론매우오랫동안사람들이주목하고자한것은 그‘기적’이었다. 예수는마치마술사처럼은화를만들어낸다! 그러나정확하게말 하자면이것은전혀중요한일이아니다. 오히려예수가한기적은항상‘경이’이상 의의미가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예수는사랑으로불쌍히여기는마음으로병 자를고치는기적을행했다. 그는때때로어떤사람을구하고자‘예외적인’기적들을 행한다… (풍랑을잡매우시는등) 그러나결코그는사람들을놀라게하려거나그 의힘을입증하려거나그의신성을만게하려고기적을행하지는않는다. 사람들이 그러한것을원할때그는항상거절한다. “우리에게기적을보여주시면우리가당신 을믿겠소.”예수는이러한것을절대적으로거절한다. (그리고이는믿음이기적에 의존하는것이아닌이유다!) 그래서이러한기적은그런식으로설명할수없다.

그렇다면이는무엇을말하고자하는것일까? 예수는이러한세금은내면안된 다고말한다. 왜냐하면이‘두드라크마’의세금은‘성전세’였으나제사장들을위해 서쓰일지언정그것을거두는사람은헤로데왕이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종교적 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했던이세금은왕에게흘러나가유용되었다. 그래서예수 는단지 **유대인**이라고하지않고 **아들들**… 하느님의“**아들들**”이라말했으며그러 한이유로이종교세를내지않아도된다고한것이다! 그럼에도이러한작은문제를 큰시험거리로만들필요는없다. (또는, 예수는이세금을거두는작은사람들, 가난 한사람들을벌받게하고싶지않았다.) 그렇게한다면이일은 **조롱거리**가되고만 다.

여기기적의정확한의미가있다. 세금을거두도록명하는권력은조롱거리이며 이권력은별로중요한것이아님을보여주기위해그는부조리한기적을행한다. 이 기적은예수가왕및성전의권위자들등에대해완전히무관심하다는것을보여주려 는것이다. 아무물고기나잡으면그입안에있는은화를찾을것이다! 우리는예수의 이태도로부터그가정치및종교권력을평가절하할뿐아니라사람들이그것에굴복 할필요가없고단지조롱하면된다고말하려함을확인한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의 심의여지없이예수시대에는이것이가능했지만지금은어렵다는반론이있을것이 다. 그럼에도그것은자신에대적해그를십자가에못박은권력을길들인예수의행 동양식이었다.

예수의네번째말씀은정치권력보다는폭력에더관련된것이다. 그것은다음의 유명한말씀이다. “칼을쓰는사람은칼로망하는법이다.”(마태오 26:52) 하지만 이본문은해석에어려움이있다. 『루가의복음서』의이놀라운말씀은예수가제 자들에게칼을사라고권고하는것처럼보인다! 그들중두명은칼을가졌고, 예수는 다음과같이말한다. “그만하면되었다!”그러나예수의놀라운말씀은본문의끝에 서부분적으로설명된다. “그는악인들중의하나로몰렸다.”하신말씀이나에게서 이루어져야한다.”그러므로두개의칼이전투에서사용되어야한다면우습기짝이없 는것이된다. 두개의칼이예수를강도또는산적두목이라는죄목으로고발하는근 거가되어야한다면정말그것으로충분하다! 예수가예언들이성취되기를원했다 고생각해야하지않겠는가! 그렇지않다면이말씀은허튼소리다. 예수가잡혀갈

수있다. 그러나내가곧이에대해언급하겠지만, 거기에는아나키즘을지칭하는일 반적인사조가있으며권위를뒷받침하는본문들은아주예외적일뿐이다.

1. 히브리성서⁴³

출애굽이후히브리백성은카리스마를가진한명의지도자에의해인도되었고 사십년을광야에서유랑하는동안특정한조직을가진적이없었다. (출애굽당시의 임시조직을제외하면) 팔레스타인에정착하고그곳을정복하기위해백성은여호 수아를군사지도자로선출했지만아주잠깐이었다. 그외는‘히브리백성’이하나의 단일한정체성을가진그룹으로형성되었던적이없다는것은확실하다. 그후백성 은혈족과지파로나뉘었다. (이미모세에의해대략적인윤곽은그려져있었을것이 다.) 각각우두머리를가졌으나아직구체적인권력은형성되지않은것처럼보였던 열두‘지파’는중요한결정을내려야했을때하느님께서백성에게주시는신탁을얻 고자제사의식및기도를거쳤으며이는백성전체가함께모여마지막한마디의결정 까지함께내리는모임이었다. 여호수아이후지파들은정복을계속하면서자신들 의영역경계를형성했다. (왜냐하면대개그들에게약속되었던땅들은… 아직정복 되기전이었기때문이다!) 그리고지파들이정착하자충분히홍미를끄는조직이생 겨난다. 지파내에는‘영주’같은것은없었고사람들이귀족이라생각할수있었던사 람들은소멸하였거나정복되었던것이다. 그러므로이스라엘의하느님은이제부 터그분홀로이스라엘의우두머리라고선언하신다.

그러나그때에‘하느님의대리자’같은것이없었기때문에‘신정정치’는아니었 다. 각각의지파에서파견된모임에서정치적인결정들이내려졌다. 하지만, 계속 된패전에의해서든기아에의해서든사회의무질서에의해서든우상숭배와이방종 교의귀환에의해서든상황이악화되었을때는 — 『판관기』에의하면 — 하느님 은어떤특정한권력이없는한남자또는여자를선택하시며그들로하여금전쟁에이 기게하시고그백성을다시하느님을경외하도록이끌어들이시며결과적으로위기 를해결하신다. 그리고‘판관’⁴⁴들은그역할을다하고나서자리에서내려와백성중 하나가된다. 그러므로하느님이가문또는부등의배경이전혀없는어떤사람을부 르시는이시스템은매우유연한것이다.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르, 삼손은왕 이라기보다는예언자였다. 그들에게는어떤영원한권력도주어지지않았다. 오직 하느님만이최고권력자로여겨져야했다. 또한 『판관기』의끝에는매우의미심 장한구절이등장한다. “그때는이스라엘에왕이없어서사람마다제멋대로하던시 대였다.”

그리고아비멜렉의이야기를통해우리는이것을확인한다. (『판관기』 9 장) 하느님의어떠한위임도없는상태에서기드온의한아들은이스라엘을구한가문의 일원이라는이름으로그아버지의권력을물려받기로했다. 그는형제들을모두암 살하고세겔과밀로에주민들을모아놓고스스로왕이라고선언했다! 그러자요담

이라는한예언자가즉시그에게맞서일어나사람들에게다음의흥미로운비유를이야기했다. “나무들은왕을굴라그들위에앉히려고모였다. 그들은올리브나무를굴랐다. 그러나올리브나무는그의기능, 그의역할은좋은기름을만드는것이라며거절했다. 그들은다음으로무화과나무를굴랐다. 하지만무화과나무는같은대답을했다. ‘내가나무들위에군림하기위해나의달콤하고뛰어난열매를포기해야하겠습니까?’ 그는거절했다. 그러나나무들은왕을원했다. 그들은포도나무를굴랐으나대답은그전의두나무와같았다. 그래서나무들은가시나무에게부탁했고, 그는물론그것을받아들이며선언했다. 앞으로그에게불순종하는나무들은그에의해‘불살라질’것이다!’ 아비멜렉을고발한예언자요담은도망가야했다. 아비멜렉은 3 년을다스렸다. 그리고자유에익숙해있던이스라엘사람들은그것으로충분하다고여겨반란을일으켰으나아비멜렉은그것을진압하고그들을학살했다... 그러나반란을진압하고나서어떤탑위에있던한여인이맷돌조각을그에게던지자그는두개골이깨져죽사했다. 그후판관시스템은회복되었다. 하지만진정한왕의권력의역사(다시말해단일한중앙권력)는사무엘의유명한이야기로부터시작된다. 사무엘은당시‘판관’이었다. 그리고이스라엘백성은모여서판관제도는그것으로충분하며 **다른나라들처럼**⁴⁵ 왕을원한다고선언했다. 이는그들이전쟁을치르려면왕이더효율적이라고믿었기때문이다! 사무엘은그것에반대하려고하느님께기도하였다. 그런데이스라엘의하느님은그에게다음과같이“대답하셨다.” “걱정하지마라. 그들이거절한것은사무엘네가아니라바로나하느님이다. 내가그들을해방시킨이후줄곧그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나를버리려고했다! 그러므로백성의요구를들어주어떠날일이일어날지그들에게알려주어라!”⁴⁶

그래서사무엘은이스라엘백성의모임으로돌아와선언하였다. “너희가왕을원한다면왕을가질것이다! 그러나너희는왕이무슨일을하는지알아야한다. 그는너희아들들을잡아다가군인이되게할것이며너희의딸들을잡아다가하렘에집어넣거나가축을치게할것이고너희에게서세금을거둘것이며너희의가장좋은토지를가져갈것이다...” 그러나백성들은대답하였다. “어떠하든지우리에게는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절대적으로왕을원합니다!” 어쩔수없는일이었다. 그렇게해서왕으로선택된사람이나타났다. 우리가알다시피그는사울이었고후에미쳐버렸으며권력을남용했고팔레스타인사람들과의전쟁에서싸우다죽었다. 두번째왕다윗은커다란명성을남겼고이스라엘의위대한왕이되었으며후세의모범이되었다. 나는다른곳에서다윗은모든이스라엘왕중“예외”라고밝힌바있다! 그러나베르나드엘러는나보다더냉정하게말했다! 그는나와반대로다윗이아나키즘에근거를제공하는좋은예라고생각했다. 우선 『사무엘하』 12:7~9 의본문에따르면, 다윗자신이한일은아무것도없고오직하느님께서그를통해일하셨으며그의영광은그의“왕권”에서비롯한것이아니라오직하느님의축복에의한것이였다. 그리고엘러는다윗이그의치세동안이스라엘왕들이수세기동안계승할재앙을촉발시키는모든것을축적한사람이라고보았다. 이것은매우중요한사실이다. (프랑스

“너희도알다시피세상에서는통치자들이백성을강제로지배하고높은사람들이백성을권력으로내리누른다. 그러나너희는그래서는안된다. 너희사이에서높은사람이되고자하는사람은남을섬기는사람이되어야하고으뜸이되고자하는사람은종이되어야한다...”

그러므로당시사람들에게일반적으로이해되었던견해가무엇이였는지가여기나타난다. 어떤나라든, 어떤정치체제든나라들의우두머리들은백성을압제한다. 압제하지않는정치권력은있을수없다! 예수의눈에그것은자명하며확실한것이다. 다시말해우두머리들및위대하다는자들이있다면정치권력은선할수없다는것이다! 그것은또다른“권력”에대한문제제기이며 (부패한권력등) 우리가앞서다룬것처럼전도자가한말의메아리이기도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그것은예수가이왕들및위대하다는자들에대한항반란및물리적인투쟁을선동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 그는언제나그렇듯질문자체로되돌아가서질문하는사람들을끌어들인다. “그러나너희는...” 너희는그래서는안된다. 다시말해그렇게왕들과싸우는데마음을쓰지말고그들을무시하라. 그리고너희는이모든것과전혀상관이없는사람들, 버려진사람들의사회를만들어라. 그사회에는‘권력’도, 권위도, 위계질서도필요가없다...⁴⁹ 너희가고칠수없는, 사회가정상으로받아들이는그러한일들말고다른일을하라. 다른기초위에다른사회를만드는것이너희가할일이다. 물론이러한태도는“탈정치화”라는이름으로비난받을수있다. 그리고사실상우리가다른것처럼그것이야말로예수의전반적인태도다. 그러나그것이“탈사회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는사회에서나가사막으로가라고하지않고그안에남아다른규칙들및다른법들을따르는공동체를세우고권고한다. 인간이권력현상을바꿀수없다는것은확실하다. 그리고교회가정치영역에들어가‘정치적인일들’을시작하자마자무엇이되었는지생각한다면그말씀이하나의예언이었음을알게된다. 교회는국가와관계를맺으면서, 그리고자신안에서“권위들”을만들어내면서부패했다. 물론정치권력에서벗어나독립적인공동체를세우는것이에수당시에는비교적쉬웠지만, 오늘날은그렇지않다는정당한반론을제기할수있다. 그것은정당한반론이기는하지만우리에게다른이들을정복하고힘을행사하는수단으로서의정치로뛰어들라고설득하기에는역부족인반론이다.

세번째쟁점역시세금에관한것인데, 여기놓인질문은앞서다룬쟁점을재생산한다. “그들이가파르나움에이르렀을때두드라크마를거두는사람들이베드로에게물었다. 당신의주인은두드라크마를내지않으십니까? 베드로는넌다고하였다. 그가집으로돌아왔을때예수께서그에게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어떻게생각하느냐? 세상의왕들은조세또는세금을누구한테거두느냐? 그들의아들들로부터냐아니면이방인으로부터냐? 베드로가대답하였다. 당연히이방인으로부터입니다! 예수께서그에게대답하셨다. 그렇다면아들들은내지않아도된다! 하지만그들을시험에들지않게하려고호숫가로나가서낚시줄을드리우면물고기가잡힐것이니그입을열어한세겔 (4 드라크마의가치를가진화) 를발견하면그것을

또는 명예의 표시가 아니라 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동전이 카이사르의 것임을 증명하는 표시였다.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 동전의 소지자는 다만 일시적인 소유자일 뿐 동이 나온 으로서 된 이 동전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될 수 없었다. (이는 황제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두상을 새겨 넣은 이유였다.) 유일한 소유주는 카이사르였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방금 말한 대로 카이사르의 인장이 동전 안에 있으므로 동전은 그에게 속하니 그가 요구한다면 그에게 주어라! 그 순간 예수는 세금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로마에 복종하라는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뿐이다!

그러나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가? 다음의 예를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힌다. 거기 새겨진 카이사르의 인장은 그의 권력과 한계를 나타낸다! 은화뿐 아니라 공공 건축물, 몇몇 황제 숭배의 제단들... 그것이 전부다!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어차피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깐. 왜냐하면, 모든 은화가 카이사르에 속한 만큼 그가 단순히 물 수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진정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나머지 모두는 카이사르의 소유가 아니다! 나머지 모두는 하느님의 것이다.⁴⁸ 진정한 이의 제기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 카이사르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해서 우선 그러하다. 카이사르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을 전쟁에 던져 넣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나라를 황폐화하고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카이사르의 지배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하느님의 권리의 이름으로 그가 시도하는 대부분을 반대할 수 있다. 헤로데가 모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본문이 “바리새와 파리새와 헤로데의 몇 사람”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이 확실하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이러한 확증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머지 모두는 하느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 전쟁을 순전히 정치적인 투쟁으로 변형시키기 원했던 혁명당원들에게 그 투쟁의 한계 및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킨 예수의 간접적인 대답이었다.

정치적 권위들에 대한 예수의 두 번째 말 씀은 한 놀라운 대화에서 나타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 중 몇몇은 예수가 권력을 붙잡을 것이라 믿었고 예수가 왕권을 얻을 때 누가 2 인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마태오 20:20~25) 제베대오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이 그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요구한다.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연히 죽을 것임을 알리고 말한 상황이었음에도, 예수 당시의 상황은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예수님은 우선 그들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여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다음의 문장을 덧붙인다.

의예를 들면 루이 14 세는 18 세기 정치적 오류들 로 이어질 모든 것을 축적했고, 결국 대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성서 본문은 다윗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한 여자의 남편과 그의 정적들을 암살한 것 그리고 그의 치세 내내 이어졌던 내전들 등으로 다윗은 그것들에 대해 결백하지도 않았고 영광스럽지도 않았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치세를 순조롭게 시작한다. 그는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 권력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퇴색시켜 버린다! 그는 세금을 올려 백성을 쥐어짜며 궁전을 새로 짓느라 파산할 지경이 되고 7 백명의 궁녀와 3 백명의 후궁을 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곳곳에 성벽을 건축하며, 결국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으며 죽는다. 여러 아들 중 그가 지명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 유대 백성의 원로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백성에게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펴서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당연히 백성은 반란을 일으켰고 “재정 장관”을 몰로 쳐 죽였다. 백성은 다윗의 왕권을 거절했다. 그리고 지파들은 나뉘었다.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다.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연합하여 솔로몬의 옛 신하였던 예로보암 아래로 들어갔다. 내 생각에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가치가 있는 이유는, ‘위대한’ 왕들에게조차 성서의 평가는 냉정하며, 정확히 그들이 당시 국가에 해당하는 군대, 재정, 행정, 중앙 집권 등을 대표하는 한, 그 평가는 더 냉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속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두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첫 번째 쟁점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성서의 역사 이야기들 전체를 통해 볼 때 ‘선한 왕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항상 정복당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등등을 한 ‘위대한 왕들’은 항상 ‘악하게’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선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에게 정의롭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참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악하다’ 함은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느님을 거절하고 불의하며 사악하다는 뜻이다. 이 ‘두’ 표현은 현대 역사가들이 반군주주의자 및 파르티잔 성향이 있는 저자에 의해 쓰였다고 할 만큼 조직적이다. (『역대기』에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를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은 다음이다. 다스린 사람들은 왕들이지만, 이 본문들은 랍비와 백성의 ‘대표자들’에 의해 윤색되고 출판되고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검열 및 통제는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저작들이 전승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게다가이저작들은잘보존되었을뿐만아니라하느님의영감을받은저작이자국가 왕권의반대자로묘사된이스라엘하느님의게시로여겨졌다. 이분들은거룩한 글로선언되었고영감을받은본문들과함께수집되었으며 (당시‘정경’이라는개념 은등장하지않았다) 회당에서낭독되었고 (마치아함왕을향한반군주주의선전문 구가그랬을것처럼!) 백성앞에서하느님의말씀으로인용되었다. 이것이기원전 8~4 세기유대백성의‘지배적인생각’이었음은내게놀라움과설득력을제공한다.

그러나이것이다는아니었으니같은본문및모든예언자의책은정치적으로낮 선현장을보여준다. 예언자는각각의왕들앞에선다. 예언자는대개 (다윗왕을포 함하여) 왕의행동에혹독한비판을가한다. 그는하느님께로부터왔으며하느님의 말씀을전한다고선언한다. 그런데이말씀은항상왕의정책에대한반대로나타난 다. 물론대체로예언자들은쫓겨나고도망가야하며감옥에갇히기도하고죽음의 위협등등을받기도하지만예언을막을수는없다. 그들의심판은진리에의한것으 로여겨졌다. 그리고여기서반권력적인그들의글들은보존되고하느님의게시로 인정되며백성에게읽힌다. 어떤예언자도왕을구하려는사람들이거나왕의조언 자가아님은물론왕권에‘동화된’사람도아니다. 현대적인용어를사용해말하자면 그들은‘반체제인사’다. 그리고이반체제인사는민중을대표하지아니하고하느님 을대표한다. 우상을섬기는왕일지라도백성이여전히믿는하느님의대표자라는 사람을쉽사리제거할수는없었다! 예언자들은끊임없이고발한다. “왕은잘못하 고게시며그러한정책을편다면우리에게하느님의심판이닥쳐올것입니다.”때때 로왕들은하느님의이름으로말한다는, 예언자라는다른사람들을부르기도한다. 그래서이두‘예언자들’사이에갈등이생기지만이사야와예레미야의이야기들은 거짓예언자들에대하여항상‘참’예언자가승리함을보여준다. 그리고여기서우리는 앞서말한것처럼역시낮선사실을알게된다. ‘거짓’예언자에게서오는, 왕에게 호의적인어떠한예언도“거룩한책들”가운데수록되지못하였지만, 예언자들이 이끈이투쟁은온전히보존되었고여기서역시왕권의예해사라져야마땅할이선언 들안에하느님께서말씀하심이확인된다. 나는이러한사실들이반反군주적, 반反 국가적인정서가지속하여왔음을보여주는놀라운증거라고생각한다.

아직끝난것이아니다! 여기에더하여아직두가지더할이야기가있다. 4 세기 무렵, 일반적으로『전도서』라고불리는놀라운책이발견되었는데, 이책은지 속적으로정치권력에대해문제를제기한다. 첫번째면면은전도자의이름이위대 한왕이자권력자요가장부유한사람이었던솔로몬으로되어있다는것이며, 처음 부터솔로몬으로하여금정치권력이란“허무와바람을쫓는것”이라고말하게한다 는점이다. 그는왕권을더얻을수없는데까지연였으며궁전들을건축하게하였고 예술을진흥시키는등등을했지만허무할뿐이었다. 하지만이책은단지정치권력 에대해그러한비판만을하는것이아니다. 내가주목하는것은“사람들간에재판하 기위해세워진그곳에늘악이있으며, 정의를선포하라고세워진그곳에늘악이있 다!”(전 3:16) 우리가나중에관료주의 (위계질서의말!) 라고부르는것안에이미 악이포함되어있다. “어떤지방에서억압받는가난한사람과범법정의에대한유린

가? 어원적으로 **디아볼로스 diabolos** 는어떤인물이아니라“분열시키는자”를 뜻한다. 그렇게국가및정치는사람들을분열시키는거대한요소이다. 그러므로악 마는원시적으로단순화된상상의산물도, 아무렇게나붙인이름도아니다. 그것은 어떤심판에관계된것이며종교적인것이아니라경험적인, 성찰에의한표현이다. 그것이폭동과내전을촉발했던하스몬왕조와헤로데왕조시대의사람들사이에존 재했던무서운분열에영향을받은것이있음은자명하다. 그것이무엇이든첫세대 의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정치권력에적의를가지고있었으며그‘체질적’경 향및구조가어떠하든간에그것을악한것으로간주하였다!

* * *

이제우리는예수그리스도자신의말씀에관련된, 특히주석들이아마도진짜예 수의말씀이라고인정하는본문들에도달할것이다. 다시말하자면, 그것은 — 초기그리스도인들의해석이아닌 — 예수그리스도자신의뜻에관한것이다. (물론 거기에대한초기그리스도인들의입장도나열될것이다.) 여기에는다섯가지쟁점 이있다.

물론첫번째쟁점은카이사르에관계된유명한이야기다. 간단히이야기를요약 하겠다. (마르코 12:13 으로부터) 예수의적대자들, 즉헤로데가보낸사람들은 그를‘당황하게’하고자하였다. 그들은예수의지혜를칭찬하고나서묻는다. “황제 에게세금을바쳐야합니까?”“우리가카이사르에게조세를바쳐야하는지아닌지 묻습니다. 그에게세금을주어야합니까? 아니면주지말아야합니까?”그런데이 질문자체에는이미답이있다. 본문에의하면, 그들은그를“그자신의말로”올가미 에걸리게하려는것이다. 그리고그들이이질문을던지면논쟁은일어날수밖에없 게되어있다. 그것은그가카이사르에게적대적이라고알려졌기때문이다! 그는 세금을내지말아야한다고말할것이고그렇게되면그들이그를로마인들에게고발 할수있는빌미를제공하게된다. 그들이예수에게온이유는바로그때문이었다. 예 수는언제나처럼아 이러니한대답을통해거기서빠져나간다. “내게동전한뼉을다 오. 좀보자.”그리고동전을받고그는오히려그들에게질문을던진다. “이새겨진 그림과글자는누구의것이나?”그것은당연히로마의동전이였다. 그것은로마통 합의교묘한수단이였다. 그들은제국전체에그들의동전을유통했고그리하여그 것은기축통화가되었으며모든다른것들을측정하는기준이되었다. 그들은이러 한사실을예수에게확인시킨것이다. “**카이사르의것입니다.**”그런데로마의세계 에서개인의모습이새겨진물건은바로그사람의것이라는뜻이었다. 19 세기서구 에서가축에소유주의낙인을찍었던것처럼. 당시에는그렇게말고는소유관계를 표시할수단이없었고, 다민족세계였던로마에서는소유관계를표시하기위하여 인장, 압인, 색칠등이사용되었다. 카이사르의두상을동전에새긴것은단지장식

뿐만아니라현세적이면서도군사력에의한권력을세울, “정의의주”로서의신비스러운어떤인물의등장을기다리고있었다는것이다. 이는그시대유다의여러목사사상에서도마찬가지다. 나는그들이아나키즘적인희망을품었다고말하려는것이아니라, 본문들이그러한생각을하게끔한다는것이다.

* * *

예수가그의사역을처음시작하시기위해나타나실때복음서는그가‘유혹’을받으셨다고말한다. ‘악마’는그를세번시험한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하게되는것은바로두번째시험이다. 원수 (악마-편집자주) 는예수를높은산위로데리고가서세상모든왕국및그영광을보여주며그에게말한다. “당신이내앞에절하면이모든것을당신에게주겠소.”(마태오 4:8~9) 또는“저모든권세와영광을당신에게주겠소. 저것은내가받은것이니누구에게나내가주고싶은사람에게줄수있소. 만일당신이내앞에엎드려절만하면모두가당신의것이될것ियो.”(루가 4:6~7) 다시한번말하지만,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이이야기들이사실인가아닌가하는것도, 신학적인어떤문제를말하자는것도아니다. 진정으로문제가되는것은이본문을기록한사람들이가졌던견해와그들이표명하고자했던개인적인확신이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 이두복음은헬라적기원을가진그리스도인공동체들의관점에서쓰인것이거의확실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앞서말한바에따른유대적인적의의감정이나타나있지않다. 그러므로이것은진정으로일반적인정치권력에대한물음이며“땅의모든왕국”의의미하는것은단순히헤로데의왕조만을말하는것은아니다. 그리고이본문들이말하는바는그야말로놀랄만하다. 모든권력, 힘, 왕국의영광, 그러므로정치권력및정치적권위에관련된모든것이‘악마’에게속하며, 이모든것이악마에게주어졌고, 그는그가원하는자에게그것을준다. 그렇게정치권력을붙잡는사람들은악마에게서그것을받으며그에게의지한다! (놀랄만한것은정치권력의정당성에대한수많은신학적인토론들이있음에도, 이본문들이전혀인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예수가그것을부정하지않는모습은그의미만큰이나중요하다.

예수는악마에게이렇게말하지않는다. “그것은사실이아니다. 너는왕국들과나라들에대한그러한권력을가지고있지않다...” 그는그것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예수가그권력을받기를거절한것은악마가자기에게무릎을꿇고경배하기를요구했기때문이다. 그리고예수의대답은오로지그부분에대한것이다. “주님이신너의하느님을예배하고그분만을섬겨라.” 그렇게예수의주변에서또한처음세대그리스도인들의세상에서우리가국가라부를수있는종류의정치권력이란악마의소유물이었으며또한권력자들이그권력을받은것은악마로부터였다. 이것은예수에대한시험이었다. 그러므로한마디의말을더할수있다. 왜악마인

이있다할지라도놀라지마라. 명령하는사람은또다른사람의감시하에있으며그들위에는또다른사람들이있다...” 그리고이본문은아이러니한말로결론을내린다. “백성에게유익한것은국가로부터존경을받는왕이다!” 그러나한편으로그는지독할정도로모든권력을장악한다. “남을마음대로주무르던자는때가되면화를입는다.”(전 8:9) 그리고결국다음의아이러니로돌아간다. “임금욕은잡자리에서도하지마라. 부자욕은침실에서도하지마라. 낮말은새가듣고밤말은쥐가듣는다.”(전 10:20) 그렇게정치권력은곳곳에첩자를풀어놓고있으니네가살고싶다면네방안에서조차그에대해나쁘게말하지마라!

끝으로, 마지막할말은이유대왕조의종말에대한것이다. 팔레스타인은그리스에의해정복되었고셀류시드왕조 (3 세기에멸망) 아래로들어갔다. 그리고유대와예루살렘을해방하기위한마카베오의유대혁명이사작된다. 이마카베오가문의오네파로물론해방전쟁은기원전 163 년에일어났다. 그러나이때몇몇정파들이권력투쟁에들어갔다. 그리고“식민독재”에서빠져나온유대인들은극단적으로부패하고궁정암투로점철된하스몬왕조의유대독재의나락으로떨어졌다. (왕중한명은어머니를굶어죽게했으며, 어떤왕은형제들을암살하기도했다.) 경건한유대인들은이하스몬왕조에적의를가졌고민중은왕조를혐오한 나머지그들이이스라엘의왕을내몰려고외국왕을부르고자했을정도였다! 이러한추락은끝이아니었으니정치권력전반에대해기원전 1 세기에생겨난민중의적대감이를설명해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왕조의이러한붕괴의역사는끝나지않았다! 로마인들이기원전 65 년팔레스타인에진출하기시작하며폼페이우스는예루살렘을포위하여참혹한학살과함께전쟁을끝낸다. 그리고폼페이우스가로마로개선헌때하스몬왕조의마지막왕아리스토틀로스는전쟁포로행렬에모습을드러냈다. 그러자유대의유력한가문들간의가증스러운왕위계승다툼이시작된다. 이러한세상에서하느님의법및견고한신앙은설자리가없었다!

결국, 카이사르의한피후견인의아들이었던헤로데가로마인들에의해갈릴래아의행정관으로지명을받았다. 그는강압적인정책을시행하였으며지독한강탈의세상질서를확립하였다. 그는주요한산적들의두목을잡아죽였다. (권력과싸우던게릴라가순수하고단순한산적으로전락했기때문이었다.) 그의반대자들은(사람을죽이고살릴수있는유일한기구였던) 산헤드린의권력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정치적’최고기구인산헤드린에그를제소했다.(하지만사실상산헤드린은실제적인권력을상실해아무일도할수없었다!) 그러나로마의권력을등에업은헤로데는이늘소심했던산헤드린앞에서확신과거만함으로군림했고산헤드린은그에게감히아무선고도내릴수없었다! 헤로데는군대를대동하고예루살렘으로돌아왔으나그의아버지는새로운전쟁을시작하지못하도록그를막았다. 그럼에도그의권력은계속커지기만했다! 그리고결국기원전 37 년, 그는사실상전팔레스타인의왕이되었으며그것은로마의“동맹왕”이었다.

그의결에는로마총독이있었다. 그러나헤로데는그의권력아래있지않았다. 헤로데는로마의(나중에황제가될) “제 1 시민(아우구스투스-역자주)”의직속 부하였다. 그리하여권력을등에업은헤로데는주목할만한정치적사업들을시작 했다. 우선그는경찰통제하의춤한행적으로전국을재편했다. 그리고그는건축 정책을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를기리는마을들및화려한아우구스투스신전을 건축했고, (그는동방전체로마황제숭배를전파시켰던사람중하나였다!) 완전 히새로운항구를만들었으며예루살렘성벽을개축하였고, 마지막으로기원전 20 년이스라엘의하느님을위하여새성전을건축하였으며(사실상이전성전의개축 이었다!), 성전뜰을확장하였고(뜰을지지하는벽들을높이세웠는데그중하나가 유명한‘동국의벽’이다), 금과화려한장식등으로치장한건물을세웠다. 이러한업 적을통해그는“대헤로데(헤로데대왕)”이라는칭호를얻었다. 하지만이건축물 들의의미하는것은백성의고혈을짜내건은세금, 노역그리고노예화였다. 그런데 이국가가 150 년간의내전과수없는황폐화에서갓벗어났던데다가아예자주시 달렸음을잊어서는안된다. 정부는어떤수단을썼는가. 바로폭력과테러였다. 그 가붙잡았던단하나의현실은바로로마및로마황제의우정과지원이었다. 그는기 원후 4 년에죽었으며그가죽자계승권을놓고또한번의내전이있었으므로로마는 이내전을이유로헤로데의지배권을몰수하기에이르지만결국아들중하나인헤로 데안티파스가갈릴래아와옛영토들의지배권을얻게되었다. 그의일생은광기, 방 탕그리고범죄로점철되었다.

이렇게역사를되짚어가는것은다음을이해하기위해서다. 이시기, 그러니까 로마지배의시기이자(유대하스몬족재때보다훨씬부드러운통치의시기였다!) 헤로데가문의폭력의시대에이스라엘민중의반응은어떠했을까? 신기한것은 (예언자다니엘의책을제외하고) 민중또는랍비들이하느님의영감으로쓰였다고 믿던책들이이시기에더는발견되지않는다는것이다. 세례자요한의때가오기전 까지더이상예언자는없다. 우리가발견하는것은두가지반응이다. 하나는폭 력으로, 이지저분한권력을끌어내리고로마지배를축출하여야한다는반응이다. 그때부터국가는지도자라는사람들간에벌어진쟁투의먹잇감이되었을뿐만아니 라왕조와로마에대항하여싸우면서요인들에대한테러및암살등을예사로벌이던 (산적이라고도불렸던!) 게릴라들이발흥하고중횡무진하는땅이되었다. 그앞에 서‘경건한사람들’은이무서운세상으로부터모습을감추게된다. 그들은종교적으 로열렬한공동체를이루어이세상의일에는관여하지않고오직예배와기도에만전 념한다. 그리고이들가운데“묵시사상”이라는사조가생겨나는데, 이사조는한편 으로는세상의종말을예언하는것이였으며(이는오래전부터알려져온것이였다. “황폐의상징인홍측한우상이있어서는안될곳에선것을보거든...” 하스몬왕조 및헤로데왕조시대에대한묘사이만한것이또있겠는가!), 다른한편으로는모든 것을제대로되돌리고자, 그리하여하느님나라를다시세우고자오실하느님의메 시아, 그의도래를예언하는것이였다. 그러나어쨌건간에이두사조는국가및정치 권력그리고그조직의가치를완전히부정하였다.

2. 예수

그러므로예수가태어나는것은이러한시대상황아래서다. 그리고『마태오의 복음서』가전하는첫번째사건을우리는무심하게지나칠수없다. 권좌에서내려 와본적없는대헤로데에게베들레헬에서막태어난한아가물고온소란은그아이 가이스라엘의메시아일지모른다는것이다. 그는즉시이것이만들어낼위험을감 지하고베들레헬과그인근에서태어난두살아래의아이들을모두죽이라는명령을 내린다! 이것이역사적사실인지아닌지는여기서는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그 일의소문이퍼졌고, 초기그리스도인들에의해수집되었으며(그들이유대인들이 었음을잊지말자!) 그들이하느님의영감으로쓰였다고인정한본문에수록되었 다는것이다. 이것은그들이헤로데를어떻게평가했는지, 또한그의뒤에있는권력이 어떠한것이있는지를잘보여준다. 그리고어린예수의첫번째재촉은바로정치권 력에대한것이였다! 이말은정치권력에대한예수의훗날의태도에영향을미쳤 다는것이아니라, 의심할여지없이그의어린시절에비친이미지가그랬다는것이다.

이러한일련의이야기들속에서내가하고싶은말은예수가권력의적이였다는 것이아니라그가권력을경멸했으며모든권위를거절했다는것이다. 이권력이어 떠한것이었던그는그것을파괴하기위해폭력적인수단을쓰지않고급진적으로문 제를제기했다. 사람들은이“게릴라예수”의마지막몇년대에대해이미많은말들을 해왔으며또한민중이그가로마인들을쫓아내줄것이라고믿었음을알고있다. 나 는이두주제가정확하지않다고믿는다. 예를들erge릴라예수에대해카르도넬(P. Cardonnel) 이말한것같은이야기들을확증해줄만한근거는사실없다. (성전장 사꾼들을쫓아내신예수, 예수께서제자들에게두개의검에대해하신다음의말씀, “그것으로충분하다” 등으로부터카르도넬은제자들이무기를들어야한다는말씀 이라고결론내렸다!) 오히려다음의근거때문에그것은불가능하다. 제자중에는 폭력을사용하자는파르티잔이었던혁명당(젤롯당) 이있었으며(시몬, 유다), 또한정보능력을갖추고공생을추구한, 로마인들과함께한협력자들도있었다(마 태오)⁴⁷.

그들은결코폭력을추구하지않았다. 만일예수가폭력을추구하는무리의우두 머리였다면다음의이유때문에그는바보일수밖에없다. 그는자기예정, 특히예루 살렘으로 향한마지막여행에서아무전략도없이그저포로가되었던것이다! 그러 나흔히알려진오류가있다. 모든유대인이걱정했던것이로마의침략자로부터추 방당하는것이였다고믿는주장이다. 이교도에대한중오, 침략자들을몰아내고자 하는의지, 로마인들이저지른대학살에대한사라지지않는기억이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지만, 그것이전부는아니었다. 유대애국자들은유 다의왕들이로마인들에의해세워졌지만, 그들없이는권력을유지할수없음을잊 지않았다. 다른말로하자면, 로마인들에대한중오와헤로데왕가를몰아내고자하 는의지, 이두정서가서로결합하였고사람들은 — 에세네파같은신비주의자들조 차도 — 권력으로부터나지않았으나유대민중에게진정한해방을안겨줄, 영적일